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 마이데이터 서비스

i-ONE 자산관리

당신이 원하던 자산관리 그 이상
i-ONE Bank 앱에서 경험해 보세요!





i-ONE 자산관리 바로가기

요즘 직장인들의 자산관리 i-ONE 자산관리

통합자산서비스
전 금융권 자산 통합 조회
자산 분석 리포트 제공

생활금융서비스
내 차 팔기 서비스
모바일 쿠폰 마켓

직장인특화서비스
신용등급·커리어관리
정부 지원금 찾기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2473호(2022.05.11) 유효기간(2023.05.10)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 조 제 1 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 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 고객센터 ☎1566 2566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IBK 기업은행은 금품 · 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729 7490, e mail : ibkethics@ibk.co.kr)

여성시대

양희은·서경석입니다

7 | 2022 July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IBK기업은행 부평지점 거래고객
강남 더드림병원 도관홍 대표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IBK기업은행 호계중앙지점 거래고객
조성코퍼레이션㈜ 조창묵 대표

IBK기업은행 마이데이터 서비스

i-ONE 자산관리

자산관리의 시작
i-ONE Bank
앱에서 경험해 보세요

통합자산서비스
전 금융권 자산 통합 조회
자산 분석 리포트 제공

생활금융서비스
부동산 시세정보 제공
노후를 위한 연금 조회

직장인특화서비스
신용등급 관리·커리어 관리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0759호(2022.03.14)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 조 제 1 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은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 고객센터 ☎1566 2566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IBK 기업은행은 금품, 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729 7490, e mail : ibkethics@ibk.co.kr)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contents 2022년 7월호







04 **여성시대 가족을 찾아서**
빚지고는 못살아

11 **이달의 편지**
'천생연분은 어디에' 외

72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강남 더드림병원 도관홍 대표

76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조성코퍼레이션㈜ 조창묵 대표

80 **코너 속 편지**
'마지막 전우, 토관병' 외

110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여름 일상

113 **서경석의 스튜디오에서**
당연한 것들 기본은 지켜져야 한다

IBK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IBK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여성시대

발행일 2022년 7월 10일 **발행인** ㈜문화방송 대표이사 박성제
등록번호 라 - 5413 **진행** 양희은, 서경석 **프로듀서** 박혜화, 김동현
방송 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인터넷 주소**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 02-368-1500 **문의** 02-789-3401 **주소** (03925)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여성시대
편집·제작 하나로애드컴(02-3443-8005) **표지 작가** Heyhoney **월간지**(비매품)

전국 주파수 안내(표준FM) ※전국 각 지역은 아래 주파수대에서 MBC 라디오 청취가 가능합니다.

서울 95.9 **부산** 95.9 / 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 / 91.3 **전주** 101.7 / 94.3 **창원** 98.9
춘천 92.3 / 88.9 **청주** 107.1 **제주** 97.9(견월악) / 97.1(삼매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 / 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 / 92.7 **충주** 96.1 **삼척** 101.5 / 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빚지고는 못살아

대전 유성구 신성동
박옥희 씨를 찾아서

글 | **성기애**(여성시대 작가) 사진 | **송인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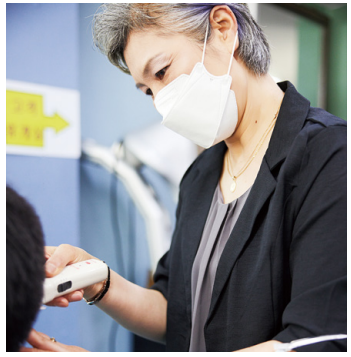
대전 유성구 신성동 남성 헤어 전문점 '다온'. 다온은 '좋은 일들이 다 들어온다'는 뜻이 담겨있다. 여성시대 가족 박옥희 씨가 가게를 연 지는 햇수로 삼 년. 삼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가게를 갖게 됐다는 것이 지금도 꿈결 같기만 하다.

박옥희 씨는 부산에서 태어나 오랫동안 부산에서 살았다. 스물여섯 살 때 건설현장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남편을 만났다. 현장 기사였던 남편은 순수한 청년으로 기타 연주를 멋들어지게 했다. 그 순수함에 반한 건지, 아님 기타 연주에 반한 건지 어쨌든 만나지 석 달 만에 결혼을 했다. 시원시원하고 씩씩한 아내와 수줍고 여린 심성의 남편은 마음 맞춰 잘살아보자 약속을 했다. 아들 둘을 낳고 며느리를 귀하게 여기는 시어머니가 계셔서 결혼생활은 더없이 행복했다.

그런데 심성이 고운 남편은 일을 해주고도 돈을 받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생활 여기저기 구멍이 조금씩 났다. 그 구멍은 아내의 한숨 소리를 불러일으켰고 아내는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여러 일을







찾아 나섰다. 집에서 하는 부업은 물론이고 비닐하우스 농사, 목욕탕 관리사, 가사도우미, 식당 서빙 등등 하루에 서너 가지 일을 함께해보아도 생활의 구멍은 쉽게 메꿔지지 않았다. 생활에 보탬이 될까 싶어 복지관에서 무료로 가르쳐주는 미용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몇 달 후 미용사 자격증과 이용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IMF가 터지고 친구와 동업을 하던 남편은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됐다.

결단이 필요했다. 박옥희 씨는 친구가 있는 대전으로 와서 살 방도를 찾아보고자 했다. 그렇게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대전으로 왔다. 수중엔 딱 백만 원이 있었다. 월세방을 얻고 대전살이가 시작됐다.

공간을 이동했다고 형편이 햇살처럼 펴지지는 않았다. 조그마한 쇼핑센터의 계산원 일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 '저기 은행 앞에 계란빵 자리가 있는데, 주인이 사정이 있어 지금 일을 못 하고 있어. 계란빵 팔아서 수익의 반은 주인을 주고 반은 챙길 수 있는데…' 그 말에 냉큼 수락했다. 일 년을 계란빵 장사를 했지만 수익을 반절 나누다보니 손안에 쥐어지는 돈이 없었다.

그런 와중에 누군가가 '풀빵 장사를 해보는 건 어때요? 풀빵이 은근히 괜찮아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풀빵 장사는 정말 좀 더 나았다. 그리고 또 다른 이가 '핫도그도 괜찮아요. 기술 알려 드릴 테니 배워 봐요.' 그래서 또 배웠다. 노점에서 만난 분들의 선의는 계속 이어졌다. 나보다 좀 더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곱고 환한 마음들이 그 길거리 곳곳에서 활짝 피어났다.

또 다른 이가 '호떡 기술 이거 쉬워요. 내가 반죽하는 법도 알려주고 장터도 소개해줄 테니 해봐요. 그리고 이거 어디 가서 봉사할 때 정말 좋아요.' '봉사'라는 말이 귀에 딱 박혔다.

안 그래도 박옥희 씨는 미용 기술을 배운 20여 년 전부터 매달 미용 봉사를 다녔다. 미용 봉사를 하며 간식 봉사를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부지런히 호떡 기술을 배웠다. 그 말은 딱 맞았다. 미용 봉사를 하러 갔다가 호떡이나 풀빵을 그 자리에서 만들어드리면 다들 좋아했다. 지글지글 호떡이 구워지고 포근포근 풀빵이 익어 가면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한 분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노점에서 장마와 한파를 맞은 지 어느덧 십여 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비가 오면 장사를 접어야 하고, 한여름 땡볕에 온종일 있다 보면 집에 들어가 잠자리에 누워도 열기가 빠지지 않아 온몸이 후끈거렸다. 추운 겨울 찬 바람 속에 있으면 무에 바람 들 듯이 머리에도 숭숭 바람이 든 것만 같았다.

대강의 속사정을 아는 성당 언니에게 "언제까지 이렇게 길에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더 늦기 전에 미용 기술로 밥벌이를 해보고 싶기도 해요." 지나가는 바람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었다.

그 말을 했다는 것도 옥희 씨는 잊어버렸는데, 그걸 귀담아들었다가 결정적으로 일을 벌인 사람은 여성시대의 오랜 가족 정만숙 씨다.

아는 성당 언니인 정만숙 씨는 어느 집 1층 상가 미용실이 나가서 비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옥희 씨를 생각했다. 옥희 씨에게 가게 구경을 가자고 하니 옥희 씨는 어리둥절했다.

"저 십 원도 없어요. 보증금도 없고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 말에 정만숙 씨는 보증금은 내가 빌려줄 테니 천천히 갚으라며 빚의 속도로 일을 성사시켰다. 가게를 소개한 부동산 중개인도 중개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고, 인테리어를 하는 정만숙 씨 내외가 내부수리도 싹 해줬다. 일사천리로 진행된 일에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다.

봉사를 다니며 수많은 이들의 머리를 깎았기에 미용 기술에는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막상 가게 문을 열고 나니 초반에 손님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낮에는 가게에서 손님들 머리를 깎고 밤이면 주변 아파트 단지 앞에 가서 호떡 장사를 했다. 가게 월세를 내고 운영해야 하니 낮이고 밤이고 몸이 바빴다. 다행히 일 년, 이 년, 삼 년이 되어가며 단골손님들이 늘어났다. 근처 군부대의 군인들과 한집 걸러 한 명이 박사라는 대덕단지의 손님들로 가게는 분주해졌다.

매주 화요일은 휴무일. 하지만 옥희 씨는 그날 더 바쁘다. 차에 풀빵 기계와 호떡 기계, 미용기구를 싣고 외진 곳에 위치한 중증 장애인 시설을 찾는다. 이발도 해드리고 간식도 해드리다 보면 하루해가 어찌 지나가는 줄도 모른다.

간혹 사람들이 묻는다. 왜 그렇게 봉사를 다니고 있냐고.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면 돈을 더 벌지 않겠냐고, 그럼 형편이 꽤나 펴질 텐데 왜 그러고 있냐고. 하지만 옥희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저 어렸을 적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엄마 혼자 우리 삼 남매를 키우셨어요. 그때 도움의 손길들이 참 많았어요. 동사무소에서 쌀을 가져다주고 라면도 가져다주고, 학비도 면제시켜 주고. 그 덕분에 저희 남매들 잘 자랐고요. 그 빚을 돌려주고 싶었어요. 저 빚지고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빚을 빚으로 바꾸고 있는 옥희 씨가 있어 세상은 조금 더 환해지고 있다.



〈나를 구원한 사랑〉

[1250] 로맨스 소설이요. 신랑은 물 없이 먹을 수 없는 건빵 같은 남자라서 설렘 가득한 저의 로망을 채워준 종이책 오빠들한테 오늘도 구원받고 있습니다.

[1804] 연애 때 마트 일하느라 다리가 너무 쑤시는데 남편의 손 마사지가 저를 구원해줬어요. 연애 때 매일 저녁 한 시간씩 주물러줬거든요.

[9908] 치질 수술하고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언니가 선물해준 동그란 도넛 방석이 저를 구원해줬네요.

[2957] 얼마 전 회사에서 자리 이동이 있었는데 에어컨 바람 춥다며 직장 언니가 자리를 바꿔줬는데 부장님하고 제일 먼 자리에요. 직장 언니가 부장님 옆자리에서 저를 구원해줬어요.



[7066] 저는 딸이 사준 이어폰이 절 구해줬습니다. 옆에서 잔소리하는 사람 목소리도 피할 수 있어요!

[2786] 45살까지 모솔이었던 저는 결혼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12살 연하 신입직원이 "부장님~ 저랑 한번 만나 봐요. 딱 5번만요." 그 고백에 결국 결혼까지 했죠. 날 구원해준 우리 신랑 사랑합니다.



[3684] 남자친구가 직접 손 글씨로 써준 편지가 구원입니다. 남친이 기념일이나 생일이나 서프라이즈로 손 편지를 써주는데 읽다 보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엔도르핀이 생겨요.



[9901] 저는 딱히 취미가 없는데 나의 구원은 월급인 것 같습니다. 비록 입금된 지 한 시간 만에 다 빠져 나가지만 월급이 없으면 행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화요일 '사랑탐구생활' 시간에 도착한 문자입니다.

이달의 편지



일러스트 | **조신애**

12 천생연분은 어디에
15 딸과 같은 학교 같은 학과
19 어머님표 산후조리원
23 내 자식이 더 어려워
27 어머니의 운전면허
31 늦깎이 프로 복서의 도전
36 우리도 호캉스
40 부창부수
42 딸의 시골생활
45 가족사진 그게 뭐라고
48 매일 왕관 쓰는 여자
52 아버지는 김치 공장 조장님
55 직장동료가 사돈이 되다
57 지하철 안에서
59 나의 애장품 월간 여성시대

Letter 01

천생연분은 어디에

강다혜 | 서울 송파구 충민로

남편은 연애할 때부터 내가 자기 딸 같다는 소리를 종종 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시절의 나는 '나이 차이가 난다고 그런 소리를 하나? 내가 애 같고 수준이 낮아서 그러나? 나이 차이가 나든 안 나든 동등한 위치에서 연애를 해야지, 어쩜 그런 구시대적인 발상을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편한 마음이 올라왔다.

남편은 밖에서 누굴 만나면 1남 1녀인 우리 집에는 딸이 둘 있다며 나는 큰딸, 진짜 딸은 작은딸이라 하는데 전처럼 많이 불편하지는 않지만 '저런 실없는 소리를 왜 할까' 하는 마음은 여전히 있었다.

그런데 요즘 남편이라는 사람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고, 또 내가 딸을 키워보면서 남편이 나를 딸이라 생각한다는 말이 무슨 마음에서 하는 말인지 알게 되었다.

부모는 자식에게 무조건 다 준다. 그게 부모 자신에게 크게 이롭기

때문이다. 자식에게 다 준다는 것은 삶을, 생명을 끊이지 않고 이어가게 한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말이 참으로 '참'이다. 그래야만 삶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연애할 때 남편에게 "나를 왜 만나냐?"고 물어보면 그냥 잘해주고 싶어서 나를 만난다고 했다. 남편은 천성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 나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내 코가 석 자인데 무슨 남을 돕느냐, 나부터 제대로 일어서야 남을 돕는 거'라고 답답해하며 머리로 옳은 소리를 남편에게 했다. 하지만 남편은 남을 도와주고 남이 자신으로 인해 성장하는 것을 봐야지 힘이 나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에게 나는 '무조건 잘해주고 싶은' 대상이었으므로 나는 존재 그 자체로 남편에게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이다. 그게 남편이 나와 같이 있어야만 하는 이유였다.

"너는 내 딸 같아."

그 말을 들은 지 13년 만에 그 말의 진짜 뜻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알게 되었고, 내가 당시의 남편에게 얼마나 빛과 같은 존재였는지도 알게 되었다. 당시의 나는 외피와 내면이 괴리되어 불편하게 인생을 살고 있었다. 겉으로는 생각 없이 발랄한 20대 여자, 속으로는 괴로움이 커서 생각하기를 멈춰버린 어린아이. 그랬던 나는 말하지 않아도 그런 나의 괴로움을 알아봐 주는 한 사람을 만나 도움을 받았고, 남편은 자신의 정처 없이 떠돌던 사랑의 에너지가 가야 할 곳을 나에게서 찾았으니 나한테 도움을 받은 것이다.

천생연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천생연분이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옆이 아닌 내 옆에 있는 '영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서로 도움을 주기 위해 만나게 된 것이다. 사이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다. 서로 배우라고 있는 배우자이다. 지금



배우자와 사이가 나쁘다면 배울 것을 배우지 않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만 본다면 나는 남편과 연애할 때 받기만 하고 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시간을 지나와 달라진 눈으로 과거의 관계를 바라보니 남편은 나에게 사랑을 주면서 또 그 사랑 덕에 성장하는 나로 인해서 남편은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음이 보인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되면 영혼이 풍요로워진다. 옆에 평생 있었지만 알아차리지 못했던 천생연분을 그제야 알아차리게 된다.

Letter 02

딸과 같은 학교 같은 학과

김세종 | 충남 공주시 신금길

51세의 나이에 대학생이라고 말해도 되는 걸까요? 저는 딸과 함께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에 입학하게 된 2022년 새내기 대학생입니다.

물론 제 딸은 기숙사 생활을 하며 주간에 학교를 다니고 있고 저는 야간에 학교를 다닙니다. 같은 학교 4401호 같은 강의실에서 저와 딸은 설레는 마음으로 대학 생활을 시작하였답니다.

제가 입학한 대학교는 전교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충남에 있는 도립 대학교입니다. 학비 부담이 덜해 딸과 함께 대학교에 다녀도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없을 거라는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원서를 쓰고 당당히 딸과 함께 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제 딸은 조금 아픈 아이입니다. 출산 예정일보다 100일이나 빠른 25주 6일 만에 850g으로 태어난 미숙아였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또

래 아이들보다 느렸습니다. 걸음마도, 말하는 것도, 배우는 것도 늘 또래 아이들보다 느렸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서 호흡기를 달고 150일을 버티고 우리 곁으로 온 딸아이는 태어난 순간부터 스무 살이 되도록 늘 병원에 다녀야 했고 지금도 병원에 다녀야 합니다.

여리고 아픈 아이가 누구의 도움도 없이 부모와 떨어져 혼자 생활하며 학교에 다닌다는 것이 불안하고 걱정스럽던 부모의 마음이었기에 딸아이와 함께 대학교에 다닐 용기가 감히 생겼던 것 같습니다.

첫 강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설렘일까? 아니면 긴장해서일까? 샛별을 보며 새벽 출근을 하고 하루의 일과를 마친 후 1시간 가까이 운전을 해서 정신없이 학교에 도착했지만 이상하게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정신없이 강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점잖게 생기신 교수님들 여럿이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내가 강의실을 잘못 찾은 것 같아 멋쩍은 듯 머리를 긁적이며 꾸벅 90도 인사를 드리며 황급히 강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강의실을 나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다시 뒤돌아보니 그 곳은 분명 내가 공부해야 할 4401호 그 강의실이 맞았습니다.

잠시 후 강의가 시작되고 나서야 상황이 파악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앞에 앉아 계셨던 그분들도 저와 같은 새내기 대학생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나이 오십이 넘어 대학에 입학했으니 아무리 야간반이라 하여도 대부분이 나보다 어린 학생들일 거라는 저의 예상은 단박에 깨져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70대 할아버지가 커피 심부름을 하셔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그 경우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나이 50이 넘어 대학교에 갔는데 우리 반에서는 제가 젊은 학생, 아니 어린 학생이 되어 있더군요. 70대 어르신까지 계셨으니 그럴 만도 하겠죠.

그렇게 입학 첫날 첫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로 가득 찬 4401호 강의실은 조용히 연둣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나무도 어린나무도 3월이면 예쁘게 새싹을 틔우잖아요. 찬바람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3월, 저는 이 강의실에서 올해의 첫 새싹을 보게 되었답니다. 60세도 한참 넘은 어르신들께서 새 노트를 펴고 새 책의 책장을 넘기시는 그 모습이 마치 오래된 나무가 반갑게 봄을 맞이하며 초록 새싹을 틔우는 듯했습니다. 이곳에서 나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든 새롭게 시작하고 또 새롭게 배운다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참 아름다운 일인 것 같았습니다.

하루의 중요한 일과처럼 학교에 도착하여 기숙사에 있는 딸을 불러내어 얼굴을 한 번 보고 바로 강의실로 올라갑니다. 강의가 끝나면 또 기숙사 앞으로 가서 또 딸을 불러냅니다. 불안해하던 딸도 하루에 한 번씩 아빠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조금은 위안이 되었는지 별 탈 없이 벌써 3개월이나 지났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무섭다고, 나는 친구들도 없다며 어린아이처럼 기숙사 앞에서 매일같이 울며 투정 부리던 딸도 이제 적응이 되었는지 새 친구들이 생겼고 친구들과 밥도 같이 먹었고 혼자 잠도 잘 잔다며 수다스럽게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딸이 아기였을 때 생사의 고비를 넘기던 순간마다 의사 선생님께서 하셨던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 말씀이 새삼 다시 떠올랐습니다. 평범한 아이들보다 부족한 딸은 이곳 대학교라는 곳에서 이렇게 혼자서 극복해 나가는 법을 조금씩 배우며 인생을 새롭게 잘 배워 나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여리

고 약한 어린나무지만 대학교라는 이곳에 예쁘게 새싹을 틔운 나의 딸은 이곳에서 아주 멋지고 튼튼한 나무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4401호 강의실은 여전히 환하게 불이 켜져 있습니다. 4층 강의실까지 단숨에 오르고 있는 내 모습은 어쩌면 딸을 핑계 삼아 새롭게 공부하고 싶었던 내 욕심이 본심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내 이기심을 알면서도 흔쾌히 남편의 학부모가 되어 준 제 아내의 따뜻한 마음과 응원이 제가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는 데 큰 원동력 되어 주는 것 같아 아내에게 정말 고맙기만 합니다.

늙은 나무와 어린나무가 한 데 어우러져 초록으로 가득 채운 4401호 강의실. 나이를 먹어도 끝없이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젊은 생각의 늙은 학생들. 낮에는 일하며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어른스러운 어린 학생들. 저는 오늘도 그들의 모습을 보며 지식도 지혜도 아닌 멋진 인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 저와 딸은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 장애인부모회에 소속되어 장애 학생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데 능력이 없어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지만 졸업 후 딸과 제가 사회복지사가 되면 장애인들과 사회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Letter 03

어머님표 산후조리원

강성화 | 경기도 하남시 아리수로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2주 동안의 생활이 거의 끝나갈 때쯤 어머님이 가족 밴드에 사진과 함께 짧은 메시지를 올려놓으셨습니다.

〈제일 부실한 산후조리원이지만 싸게 해줄 테니 얼른 와요!〉

어머님은 저와 아기를 맞을 방을 꾸며 놓고, 제일 부실한 산후조리원이지만 싸게 해줄 테니 오라, 농담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최신 시설을 비롯해 매끼 호텔식처럼 나오는 조리원 생활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고 여겼던 어머님의 진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주고 또 주고, 가진 것 다 내어 아낌없이 주어도 항상 모자라다 여기는 바로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해 양가 어머님들의 연세가 있다 보니 원래 계획은 조리원 생활 후 산후도우미의 도움을 몇 달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저만 불편하지 않으면 직접 산후조리를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친정이나 주변에서는 시댁에서의 몸조리를 우려했습니다. 아무리 친한 고부 사이라 해도 오랜 시간, 그것도 어머님의 일방적인 희생이 불가피한 일이니 그런 기우는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그로 인해 서로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전 그저 어머님에게 죄송하고 감사할 따름이지 다른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1년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지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축복받은 고부 관계라 믿고 있었기에 주변의 우려에는 그저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루도 빠짐없이 생과일주스를 갈아서 챙겨주는 것만큼이나 어머님의 마음 또한 한결같으셨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함께 지내다 보면 불편하고 부딪힐 일도 많은 법입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 덕분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졌던 듯합니다.

침대 생활하는 며느리 허리 아플까 봐 세 겹 네 겹 정성스럽게 깐 요와 목화솜을 넣어 손수 마련해 주신 아기 이불 세트. 그냥 따뜻한 물이면 될 텐데 여름에 태어난 딸을 위해 그 무더위에 100일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물을 팔팔 끓였다가 식혀서 정성스럽게 시켜 주시는 목욕. 산모는 밥을 잘 먹어야 하니 밥이 맛있어야 한다며 끼니마다 새로 지어주시는 밥. 미역국을 무척 좋아해서 매일 먹어도 상관없는데 혹시라도 질릴까 봐 소고기, 황태, 굴, 닭고기 부재료를 돌아가며 바꿔 끓여주시는 미역국. 7월 초 삼복더위를 지나 가을에 들어설 때까지 어머님은 매일 한결같이 저와 딸을 위해 정성을 쏟아주셨습니다.

어머님은 어머니의 친정엄마께서 석 달 동안 산후조리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 두 딸과 며느리의 산후조리에 진심이셨던 듯합니다.

아이가 생후 100일이 될 때까지 시댁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저는 집이 아닌 친정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내려간다고 하니 아이를 위해 손수 백일상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늦둥이 막내가 늦게 결혼해 열 번째 손주를 안겨 드렸더니 어찌나 좋아하시는지요. 제 딸이 태어나던 해는 아버지가 80세, 엄마가 73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친정에서 보름을 머물다가 그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산후조리원 2주를 포함해 무려 넉 달을 양가 어머님의 지극정성 속에서 산후조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넉 달 동안 산후조리를 한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어쩌면 제가 누군가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는 마음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내리사랑을 많이 받은 덕분인지도 모릅니다. 사랑을 받을 수 있음이, 사랑을 나눠 줄 수 있음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준비하던 책의 출간 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어머님에게서 메시지 한 통이 왔습니다.

〈책 쓰느라 그 많은 밤을 새웠을 거라 생각하니 너무 가슴 아파요. 고생 많았어요. 축하해요!〉

제가 글을 올리고 있는 어느 SNS의 구독자이기도 한 어머님은 실시간으로 며느리의 글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며느리가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론 건강이 걱정되셨나 봅니다.

출간 마무리로 바빴던 4월의 어느 주말, 남편과 딸만 시댁에 다녀



왔습니다. 일요일 늦은 오후에 도착한 남편의 양손엔 어머니가 챙겨 주신 음식, 아니 사랑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며느리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밥만 해서 저녁 식사를 먹을 수 있게 된장찌개와 생선구이도 챙겨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생했다고 홍삼진액까지. 어머님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의 극진한 사랑으로 우리 린이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 지금처럼 행복하게 잘살 테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사랑합니다~♡

Letter 04

내 자식이 더 어려워

박영옥 | 경기도 시흥시 은계남로

며칠 전 오래간만에 지인들을 만나 점심을 먹었는데 큰 낭패를 겪었다. 지인이 맛있는 점심을 사주셔서 '커피는 내가 꼭 사드려야지'하고 카페에 들어갔는데 주문하려고 보니 카드를 안 가져온 데다 계좌이체도 안 된다 하고, 그곳은 지역화폐 계산도 안 되는 곳이었다. 우리 동네 대부분의 가게는 지역화폐로 결제가 되는데 난감했다.

나는 휴대전화에 10% 할인된 금액으로 지역화폐를 사서 결제하는 게 평소 습관이라 아무 생각 없이 나갔다가 커피값까지 지인에게 내게 해서 너무 죄송했다. 지갑을 잘 안 챙겨 다니는 터라 가끔 그런 난감한 일이 있어서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물어보았다.

"아들! 요즘 휴대폰에 신용카드 저장해서 사용하는 것 좀 알려주라. 오늘 엄마가 카드도 현금도 없어서 난감한 일 있었거든."

내가 휴대폰을 들고 아들이 하라는 대로 이거 누르고 저거 누르고 이거 입력하고 저거 입력하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되었다. 뭐 이상한 게 자꾸 뜨고, 인증받았는데 무슨 인증을 또 하라 그러고 몇 번 하다가 안 돼서 아들에게 다시 물었더니 아들이 한숨을 푹 쉬면서 그런다.

"아휴~ 엄마, 줘 봐요! 이게 그렇게 어려워?"

하면서 후다닥 저장해서는 내게 휙 휴대폰을 건네준다.

'내게 잘 알려줘야 나중에 또 이런 일 있을 때 써먹지. 그렇게 저장만 해주면 내가 또 사용 방법을 어찌 아누?'

한 소리 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나는 또 꾹 참아버린다. 요즘 내가 아이들한테 많이 듣는 말은 이런 말이다.

"됐어! 됐어! 엄마!"

"아냐! 아냐! 아냐!"

"엄만 몰라도 돼!"

컴퓨터를 켜면 뭔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해서 아들딸한테 물어보면 조금 가르쳐 주는 듯하다가는 답답하다며 자기네가 후딱 해버린다. 그리고 휴대전화 만지다가 내가 깔지도 않은 앱이 자꾸 나오고 이상한 알림이 자꾸 오고 그래서 무슨 개인정보라도 노출됐는가 싶어 간이 콩알만 해져 물어보면 우리 아이들로부터 늘 나를 답답해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난 완전 컴맹도 아니고, 완전 기계치도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의 정신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IT 세계를 따라가기엔 솔직히 버겁다. 그걸 아들딸이 차근차근 알려주고 설명해주면 나도 어느 정도 잘 따라갈 수 있을 텐데….

친구들 만난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니 나만 그런 게 아니란다. 자기들도 TV 보다가 아이들은 다 웃는데 본인은 몰라서 멀뚱멀뚱, 뭔 내용인가 물어보면 조금 설명해주는 듯한데 그래도 또 이해를 못 하면 그냥 "엄만 몰라도 돼" 그런단다.

다들 어찌나 격하게 공감하던지. 웃기는데 슬픈, 우리는 씁쓸한 미소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나처럼 휴대전화 사용하다가 모르는 거 있어서 물어보면 자식들은 그저 그 자리를 얼른 뜨고 싶어서 설명도 없이 후딱 가르쳐 주고 그게 끝이라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차근차근 설명해줘서 다음에 똑같은 일이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걸 바라는데 말이다. 두 번, 세 번 물어보면 짜증 낼 거면서 꼭 그런다. 눈치 보여 자꾸 물어보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게 될 내 모습이 선하다.

그러고 보니 아들딸이 그리 편하지 않은 것은 나뿐만이 아닌가 보다. 내 친구들도 그랬고 다른 많은 어르신도 그랬다.

전에 작은 시골 마을의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계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 업무 시작도 하기 전에 스무 명 가까운 어르신들이 민원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어느 통신사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통신비 감면을 해준다고 해서 그 '통신비 감면' 신청을 하러 오신 거였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게 아닌, 그냥 어르신들이 통신사에 전화 한 통 걸어서 신청하면 되는 일이었지만 ARS 연결해서 상담원 연결까지 하기가 귀도 눈도 어두운 어르신들께는 확실히 쉬운 일은 아니었다. 꼭 본인이 아닌 자녀들이 해주어도 되는 거였는데 대부분의 어르신은 민원실로 오셔서 '전화 걸어 통신비 깎는 거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다.

"자제분들이 대신 어르신 휴대폰이 아닌 다른 휴대폰으로 신청해도 돼요."

"우리 아들이 너무 바빠서…"

"우리 딸이 바빠서 그러니 좀 해줘."

덕분에 한참 동안은 그걸 해드리느라 많이 바빴던 기억이 난다. 그분들의 자녀들이 아무리 바쁘다고 한들 전화 한 통 걸 시간도 없었겠는가 싶지만 내가 요즘 느끼듯 그 어르신들도 자식들에 대한 무언지 모를 편안하지 않은 차라리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하는 게 더 맘 편해서 그러지 않으셨을까. 그런 씁쓸한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그 어르신들의 자제들을 탓하기 전에 나도 예전에 그랬던 거 같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TV 안 나온다, 세탁기가 잘 안 된다, 휴대폰 충전이 안 된다 그러면 너무도 간단한 건데 그걸 왜 못하시나 싶어서 답답해했던 거 같다. 그때의 내 모습과 너무도 비슷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요즘의 나는 뉘우치고 뉘우치고 또 반성 중이다.

나이 오십을 넘어가며 이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철이 들어가고 있는 나는 요즈음 부모님 댁에 가면 꼭 여쭙는 게 있다.

"TV 잘 나와요? 세탁기 속 안 썩여요? 뭐 불편하신 거 없어요?"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직접 하고, 못하는 것은 남편에게, 남편도 못하는 것은 AS 신청을 해서 고쳐 드린다. 이번 주에 부모님 댁엘 가면 앞으로 다가올 더위에 대비해서 선풍기를 죄다 꺼내 닦아 말려 조립하고, 에어컨 필터 청소도 좀 해드리고 그래야겠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뭐니 뭐니 해도 머니'란 말도 있더니만 선물도 좋고, 용돈도 좋고 다 좋지만 가장 기본은 따듯한 말 한마디가 아닐까. 부모가 자식이 어려워서 말 붙이기 힘들어하지 않게 부모, 자식 사이에도 좀 더 따듯이 품어주는 말 한마디가 정말로 필요한 세상이라는 것을 요즘 들어 더 실감하고 있다.

Letter 05

어머니의 운전면허

김경식 | 경북 김천시 감문면 성촌리

그해 설 연휴에 가족들 앞에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운전면허증을 딸까 보다."

다들 깜짝 놀랐다. 예순 넘도록 자전거도 안 탔는데 갑자기 자동차를 운전하시겠다니! 누나들은 위험하다며 어머니를 만류했다.

"뭐 하러 운전면허를 따려고? 그냥 편하게 버스 타고 다녀요!"

"너희가 말려도 소용없다. 꼭 면허 딸 테니까 그리 알아라."

겨우 초등학교 졸업하고, 결혼해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만 하다가 뜬금없이 운전면허에 도전하시려는 이유는 순전히 나 때문이다. 25년 전에 교통사고로 중증장애인이 된 나는 차가 없으면 외출이 불가능하다. 매달 소변 호스를 교체하러 병원에 가려면 자원봉사센터에 미리 연락해서 봉사자가 연결되기를 기다렸다가 차량을 지원받는데, 예약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생겨서 도움을 받지 못할 때도 있

었다. 급할 때는 119에 전화해서 병원에 갔지만 돌아오는 것은 알아서 해결해야 했다. 소방대원은 안타까워하며 "규정상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다.

김천시에 장애인콜택시가 없던 때라 일반 택시를 불러 세웠지만 승차 거부로 지나칠 때마다 어머니는 발을 동동 구르며 속을 태우셨다. 운 좋게 택시를 잡아타도 시골 우리 집까지는 요금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어머니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로 하신 것이다.

누나에게 책과 기출문제집을 인터넷으로 구입해 보내달라고 해서 낮에는 농사일과 집안일까지 하고 새벽과 밤늦게 책을 보셨다. 꾸벅꾸벅 졸면서도 책을 잡았고, 영어가 나오면 내게 물으셨다. 어머니가 쉽게 포기하리라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의지가 강하셨다. 열심히 공부하는 어머니를 보고 작은누나는 한 가지 약속을 했다.

"엄마가 운전면허증 취득하면 내가 타던 경차 드릴게요."

누나는 대구에서 자취했는데 회사 근처로 이사하면서 차를 우리 집에 세워두고 갔고, 어머니는 매일 경차를 바라보며 '다른 사람 도움 받지 않고 아들을 언제든 차에 태워 내가 운전해서 병원에도 가고 바깥 구경을 시켜 주리라' 다짐하셨다.

필기시험을 보러 시험장에 가신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돌아오셨다.

"경식아!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실기시험은 학원에 등록해서 배우고 시험 봤는데 이번에도 아슬아슬하게 합격! 그러나 도로 주행은 불합격! 주말마다 누나가 와서 운전 연습을 도왔는데 어머니가 자주 실수하시자 누나는 버럭 화를 내며 잔소리를 퍼부었다. 어머니는 기분이 상하셨지만 참고 연습했는데 또 탈락! 그러나 심기일전, 세 번째 도전에 결국 합격하여 면허증을 받으셨다. 누나는 약속대로 자동차 열쇠를 어머니께 넘기며 말했다.



"조심해서 타고 다녀요."

어머니는 콧노래를 부르며 깨끗이 세차한 후에 종이에 큰 글씨로 '초보운전'이라 적어 자동차 후면에 붙였다. 나를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석에 앉은 어머니는 시동을 걸었는데 잔뜩 긴장하여 손발을 가늘게 떠셨다. 나도 덩달아 긴장하여 몸이 뻣뻣하게 굳었다. 어머니는 심호흡을 한 후 액셀을 천천히 밟으며 골목길을 빠져나와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시속 40km로 가자 뒤따라오던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추월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놀라고 당황해서 차선을 이탈하며 이리저리 왔다 갔다 때로는 중앙선을 넘기도 했다. 반대편에서 오던 대형 트럭을 발견한 나는 소리를 질렀다.

"엄마! 맞은편에 차! 조심하세요!"

어머니가 급하게 핸들을 꺾는 순간 자동차가 도로 옆 화단으로 올라가더니 이내 멈추었다. 차가 한쪽으로 기울어 뒤집힐 것같이 위태로웠다. 어머니는 시동을 끄고 밖으로 나가셨는데 문제는 나를 꺼낼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주변에 도움을 청하셨고 길 가던 사람들과 과일가게 사장님이 도와주러 달려오셨다. 남자 세 명이 차를 붙잡고 과일가게 사장님이 기어를 중립으로 바꾸더니 핸들을 붙잡고 돌리며 말했다.

"하나 둘 셋 하면 천천히 차를 밀어주세요."

그분의 구령에 맞춰 차를 밀자 차가 서서히 움직이더니 마침내 화단을 빠져나왔다. 어머니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사람들에게 인사했다.

"다들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야 좋을지."

"당연히 도와야지요. 아드님이 몸이 불편하던데 다치지 않아 천만다행이네요. 앞으로 조심해서 운전하세요."

어머니는 당신의 잘못으로 아들이 다칠 뻔했다며 자책하셨다.

"괜히 너를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제가 소리 지르지만 않았어도 괜찮았을 텐데 죄송해요."

운전면허 취득한 지 이제 어느덧 10년! 어머니는 아직도 운전에 베테랑은 아니지만 나의 베스트 드라이버다.

Letter 06

늦깎이 프로 복서의 도전

한영찬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전남 벌교에서 살다가 1983년 고등학교 입학을 위해 시외버스 타고 광주로 오는데 권투체육관이 보였다. 고향에서 초등학교 다닐 적에 TV에서 권투경기가 있는 날이면 옆집에서 TV를 보며 응원하는 소리가 들리곤 했다. 우리 집에는 TV가 없었는데 1970년대 박찬희 챔피언이 시합할 때면 항상 머리에 머리띠를 매고 링 안으로 들어오던 모습이 기억난다.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것 같다.

'나도 이다음에 박찬희 선수처럼 권투선수가 되리라!'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그 꿈 때문인지 고등학교 3학년 때 권투체육관 앞을 지나가다가 바로 체육관에 들어가 관장님께 권투를 배우고 싶다고 했다. 운동하는 선수들에게서 나는 땀 냄새가 코를 찔렀다. 기본기를 배우고 한참 후에 실전 스파링을 해봤다. 치고받고 상대의 주먹으로 머리를 맞는 순간, 핑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다.

1980년대에는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회사가 대부분이었다. 공장 일을 마치고 체육관에 도착하면 밤 10시. 그 시간이 되면 체육관에는 운동하는 사람이 나와 몇 명뿐이었다.

프로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군대 영장이 나왔다. 군 생활을 하면서도 마대자루에 모래를 넣어 샌드백을 만들어 부대 한쪽에 걸어 놓고 틈틈이 두들기며 마음을 달랬다.

1990년 10월, 2년 6개월의 군 생활을 마쳤는데 군에 있는 동안 몸무게 57kg에서 68kg으로 불어 있었다. 나의 권투경기 적정 체중은 55kg급. 권투선수로 나가기 위해 서서히 몸을 만들어 드디어 1991년 3월, 프로선수 테스트에 합격해 프로선수의 길로 접어들었다. 프로선수는 직업이라 경기를 하고 나면 대전료가 나온다. 당시 나의 대전료는 20만 원.

매년 11월이 되면 '전국 프로권투 신인왕전'이 열린다. 나도 출전을 신청하고 훈련에 임했다. 나의 체급은 55kg급으로 주니어 페더급에 속한다. 몸무게가 64kg 상태에서 시합이 결정되면 9kg을 감량해야 한다. 중량 검사에서 불합격 시 시합은 취소된다. 시합 날 오전에 중량 검사가 끝나면 휴식을 취하다가 오후에 시합을 하게 된다. 언젠가 한 번은 시합 전날에 적정 체중 55kg에서 500g 오버해서 체육관 근처 목욕탕 사우나실로 들어가서 중량을 뺀 적이 있다. 그때 사우나실 온도는 110도, 살이 타는 듯한 느낌, 그 순간이 너무 힘들어서 잊히지 않는다.

신인왕에 출전하는 선수는 대부분 스무 살 안팎이다. 내 나이 25세. 나보다 한참 어린 선수와 싸워야 한다. 시합 당일 서울 정동에 위치한 문화체육관은 관중으로 가득했다. 문화체육관 사각의 링은 내가 운동하는 체육관 링과 달리 너무나도 넓은 공간이었다. 심판이 양

선수를 불러놓고 주의사항을 말하지만 귀에 들리지 않는다. 많은 관중 앞에 서 있는 자체가 떨리고 긴장된다. 오직 상대 선수만 보일 뿐. 프로 데뷔 시작을 알리는 종이 '땡!' 하고 울렸다. '땡!' 종소리 나면 나가서 싸우고, 다시 '땡' 종소리 나면 멈추고, 3분 4회전을 싸웠는데 어떻게 싸웠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12분을 싸우기 위해 1년을 준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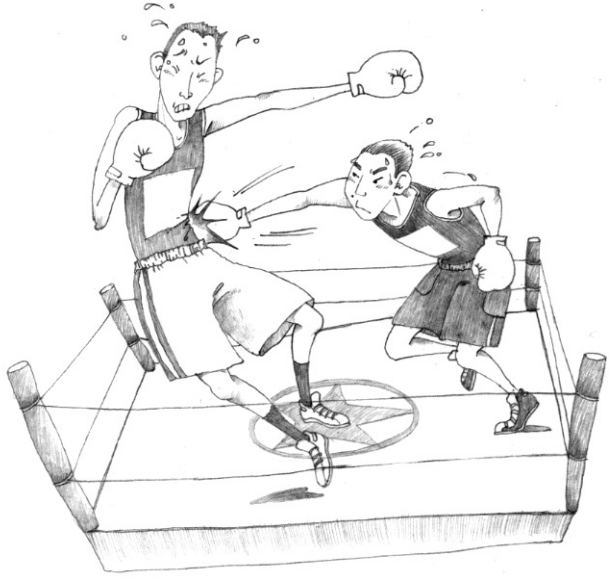
첫 경기를 이겼다. 승리 후 하루 쉬고 두 번째 경기를 치렀는데 패하고 말았다. 신인왕전 타이틀을 따려면 총 다섯 번 경기에서 모두 이겨야 하는데 예선 두 번째 시합에서 첫 패배의 쓴맛을 봐야 했다.

신인왕전은 TV에 방송되는 시합이라 어머니가 보시게 되었다. 서로 맞고 때리며 피로 얼룩진 얼굴까지 보셨다. 다음날 어머니께서 곧장 안양으로 올라오셔서 권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시골에 가지 않겠다며 아예 방에 드러누우셨다. 나는 일단 안심시켜 드린 후 시골 가시는 길을 배웅했다.

그 무렵, 권투의 인기는 시들어 시합 자체가 자주 열리지 않았다. 1992년은 프로선수가 되고 2년째 되는 해, 권투 시합은 여전히 자주 열리지 않고, 26세 신인 선수의 현실에서 세계 챔피언은 너무 멀리 있고, 두 번째 신인왕 도전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에게는 신인왕이 세계 타이틀전 도전이나 마찬가지라고 나 자신과 약속했다.

'이번 신인왕 도전에 실패하면 미련 없이 링을 떠나겠노라.'

한 달여 훈련하며 시합을 준비했다. 시합 전날 적정 체중 55kg에서 300g이 오버였다. 시합 당일 체중을 검사하기 위해 시합 전날 아침부터 시합 당일 새벽 여섯 시 체중 검사할 때까지 물을 포함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 입이 바짝바짝 마르며 갈증이 나고 잠을 청해도 잠도 잘 수 없다. 중량 300g을 빼기 위해 차가운 새벽 거리를 달렸다.



먹은 게 없기 때문에 기운이 없어서 몇 걸음 뛰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다. 다시 일어나 뛰면서 목 안에서 침을 있는 대로 뱉어낸다. 100g이라도 더 빼기 위해. 시합 당일 새벽 6시에 중량 검사하고 나면 밥을 먹고 나서 잠을 자고 몸을 회복해서 오후에 시합하게 된다. 체중을 뺄 때가 다가오면 도망가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운동했던 선배 중에는 중량 빼는 게 힘들어서 도망간 사람도 있다.

신인왕전 시합이 시작되었다. 예선전 첫 상대 선수가 만만치 않다. 아마추어 소속 지역 대표 선수이자 경험이 많은 선수로 키가 나보다도 10센티미터 이상 큰 선수였다. 3전밖에 싸워보지 않은 나로서는 열세인 게 확실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주눅 들지 말자'고 다짐했다. 땡! 종소리와 함께 경기가 시작되었다. 1라운드 중반쯤, 상대 선수의 펀치를 맞고 다운되었다. 심판이 카운트하는 동안 나는 일어나서 '경

기할 수 있다'고 심판에게 두 주먹을 올려 의사 표현을 했다. 경기는 다시 속개되었고, 나는 '키가 큰 선수는 맷집이 약하다'고 파악하고 상대 선수의 옆구리에 이은 안면 강타로 역전 KO승으로 이겼다.

하루 쉬고 둘째 날 링 위에 올라갔다. 상대 선수와 인사하고, 심판에게 주의사항을 들은 후 땡! 경기 시작! 1라운드가 끝나고 2라운드 중반쯤 먼저 다운당했지만 난 바로 일어나 저돌적인 공격으로 역전 판정으로 이겼다.

셋째 날 경기, 상대가 이번에도 장신이다. 주눅 들지 않고 상대했지만 세 번 다운을 당하고 경기가 중단되었다. 나는 다운을 당할 때마다 곧바로 일어나서 싸우겠다는 의사를 심판에게 표했다. 신인왕이 되지 못하면 이제는 영원히 링을 떠나야 하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일어나야 했다. 그러나 경기 규정상 한 라운드에 다운을 세 번 당하면 자동으로 시합이 중단된다. 이렇게 해서 나의 프로권투 신인왕전 두 번째 도전은 아쉬움을 남기고 끝났다.

시합이 끝나고 문화체육관을 걸어 나오는데 자꾸 뒤돌아보게 되었다.

'두 번의 신인왕전을 통해 내 젊음을 불살랐던 곳, 그러나 이제는 오지 못하겠구나.'

1993년 뜨거운 여름날, 나는 권투 글러브를 벗고 운동을 그만두었다. 3년여 짧은 프로 복서 생활, 좋은 결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신인왕 타이틀에 두 번씩이나 도전해 봤기에 나는 만족한다. 또한 신인왕이 되지 못한 아쉬움보다는 3년여 시간 동안 꿈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나 자신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꿈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땀을 흘리느냐가 중요한 것. 내 나이 56세, 권투를 했던 그 정신으로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Letter 07

우리도 호캉스

문정화 |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엄마, 우리도 호캉스 가즈아~."

남편과 나는 호캉스는 부자들만 가는 것인 줄 알고 안 간다고 손사래를 쳤으나 결국은 딸의 계획에 들어가 버렸다. 한 달 전부터 딸이 계획한 호캉스에 합류하기 위해 우리 가족은 나름 노력했다. 남편은 새벽 알바하는 곳에 일주일 전에 말해서 시간 확보, 난 반차와 연차로 미리미리 찜! 아들은 학원에 가족 행사로 못 감을 알렸다. 딸은 학교 교사로 요 몇 개월은 자기 계발로 쉼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효녀 노릇 제대로 한다며 서울에 있는 호텔에 1박을 예약해 둔 것이다. 서울 생활 5년째 된 25살 딸 도연이는 엄마 아빠가 넉넉하지 않은 생활에 좋은 곳을 두루두루 못 다녀 본 것이 안쓰러웠나 보다.

우리 가족의 첫 호캉스 장소는 서울 여의도의 OOO 호텔이다. 5월 4일, 지하철로 아들과 우리 부부는 두 번 환승하며 여의도역에서 딸과 만나 호텔로 들어갔다. 가는 길에 딸의 당부가 있었다.

"아빠 엄마, 내가 알아서 체크인하고 필요한 거 다 할 테니까 직원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지마. 촌사람 티내면 안 돼."

우린 그때부터 입이 있어도 다물어야 했고 딸의 뒤꽁무니만 졸졸졸 따라다니는 어린아이들이 되었다. 엘리베이터에 25층을 누르고 휭하고 몇 분 안에 우리가 묵을 방에 도착했다. 넓은 커다란 통유리에 바깥 풍경이 내 눈과 입을 크게 만들었다. 한강이 바로 눈앞에 펼쳐졌다. 처음 보는 뷰다. 조여졌던 가슴팍도 더 넓어지는 것 같았다. 커다란 침대 두 개와 큰 화장실 안에 있는 욕조와 샤워실도 맘에 들었다. 침대 앞에 있는 선반 위에 와인과 커피머신, 냉장고 속에는 음료와 맥주가 있었다.

"엄마, 여기 있는 거 다 비싸. 가능한 한 먹지 말고 나가서 저녁 먹고 간식 사 가지고 오자."

우린 짐을 놓고 나가서 호텔과 연결된 백화점으로 갔다. 부자들이 가는 백화점에서의 저녁 식사는 내가 사는 인천의 마트보다 배로 비쌌다. 비싸니, 먹지 말자니 하는 말은 남편과 하지 말자고 미리 말을 맞추었기에 비싸도 맛있기에 먹었다. '텐동'이란 일본식 덮밥을 먹었다.

아이쇼핑을 시켜준다며 백화점을 돌고 돌고 다리가 아파 오고 피곤이 밀려왔다. 이젠 호텔에 들어가자고 아이들에게 조심조심 말을 꺼냈다. 우리 부부는 둘 다 반나절 일하고 바로 서울 호텔로 출발했기에 피곤이 밀려왔음을 딸도 알기에 호텔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빨라졌다. 호텔 도착 후, 딸이 가방에서 뭔가 꺼내어 보인 것은 이태리타월이었다.

"엄마 아빠, 여기서 때 밀어. 여기 엄청 비싼 데야. 물도 좋고 탕도 넓으니까 묵은 때 실컷 밀고 가자."

딸의 제안에 웃기기도 하고 또 맞는 것 같아 우리는 나부터 시작해서 차례차례 들어가서 열심히 묵은 때를 밀었다. 다 밀고 하얀 수건 가운을 입고 나와 시원한 물 한 잔 먹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상쾌했다. 남편이 들어가 탕에 있다가 갑자기 문을 빼꼼 열고 소리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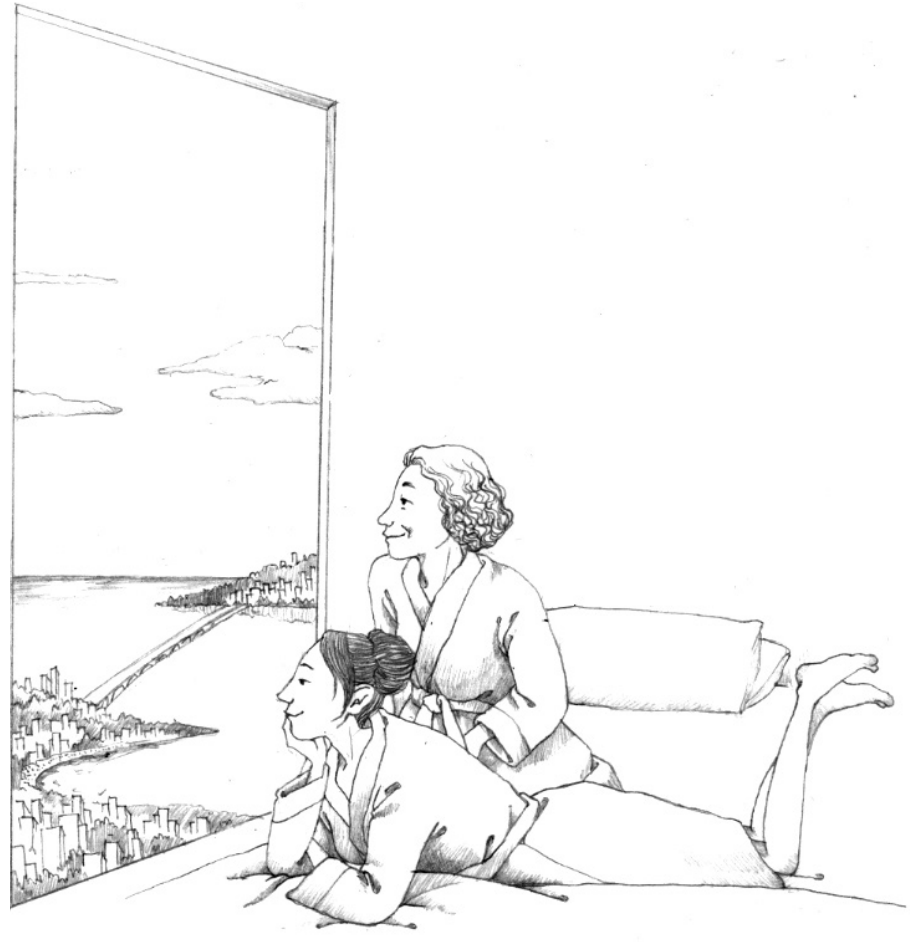
"도연아, 샴푸랑 린스, 바디샴푸 쓰면 돈 내야 해?"

"여기가 얼마짜린데 그건 공짜야~."

내가 딸 대신 이렇게 말하자 딸과 아들이 박장대소를 한다. 결혼 27주년 동안 이렇게 좋은 호텔에서의 호캉스는 처음이라 이럴 수 있다고 딸은 아빠를 무안하게 만들지 않았다. 목욕하고 나서 밖에서 사온 만두, 사발면, 빵, 음료를 먹으며 우린 수학여행 온 학생처럼 조잘조잘 수다 한판을 떨었다. 수다 마지막 주제는 낼 아침 조식을 어떡할까였다. 조식이 너무너무 비싸다. 한 끼에 오만 원. 먹지 말자는 내 말에 아들은 언제 이렇게 호텔 룸서비스를 먹어보냐며 먹자는 데 한 표, 남편도 딸도 한 표. 그래서 2인분만 주문하기로 결정했다. 왜냐면 남은 간식들이 있기에. 야경도 푹신한 침대도 더 누리고 싶었지만 피곤함은 이기지 못하고 꿈나라로 들어갔다.

새벽 6시에 일어난 남편이 "일출이다" 하며 한강 가운데에 빨갛게 떠오르는 해를 연신 찍었다. 주문한 조식이 들어오고 비싼 아침을 우아하게 먹으려고 노력했으나 역시 우린 한국인과 서민 입맛에 길들어져서 그런지 마지막은 진하고 매운 짬뽕 국물 맛 사발면으로 마무리했다.

11시. 아쉬움을 뒤로하고 체크아웃하고 우린 다시 지하철을 타고 우리 집 인천으로 출발했다. 하룻밤이지만 비싼 가격만큼 즐거운 많은



추억이 된 호캉스였다. 돌아오는 내내 난 동화 신데렐라가 생각났다. 유리 구두는 예쁘긴 하지만 불편하다는 진실. 우리 딸이 준비한 호캉스에 감사합니다.

Letter 08

부창부수

김선영 | 강원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남편과 결혼한 지 13년. 학교 다닐 때부터 친구라 다른 부부나 커플처럼 알콩달콩한 게 없었고 또 제 성격이 워낙 무뚝뚝하고 애교가 없어서 손이나 팔짱을 끼고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사이가 아주 좋아야 나란히 걷고, 평소에는 같이 걷거나 운동을 해도 앞뒤로 멀찌감치 떨어져 걸어서 부부나 애인 사이인 줄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둘이 마트에 갔는데 제가 물건을 고르면 남편은 카트를 끌고 물건을 담아서 옮겨주는 역할을 시키려고 마트에 데려갔습니다.

제가 물건을 집고서 제 뒤로 바짝 따라오는 카트에 물건을 담으면서 "오~ 이건 애들이 좋아하겠다" 고기 담고, 생선 담고, 아이가 좋아하는 회를 한 팩 담으면서 "이건 비싸니까 자긴 먹지 말고 애들만 주자" 했는데 대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먹을 거야?" 물으며 뒤를 돌아봤는데요. 아~ 생판 모르는 남의 아저씨가 있는 겁니다. 그 아저씨는 또 제가 본인 아낸 줄 알고 졸졸 휴대폰만 보면서 따라온 겁니다.

죄송하다며 제가 담은 물건을 빼고, 두리번거리며 우리 아저씨를 찾았더니 멀찌감치 저기 밀키트 코너에서 두리번대고 있더라고요. "아니~ 좀 잘 따라오지?" 했더니 다른 아주머니가 저인 줄 알고 다른 분을 따라갔다고 하네요. 아이고~ 참, 좀 옆으로 붙어 다니라고 잔소리를 며칠 동안 했습니다.

토요일 새벽, 남편을 끌고 새벽 예배에 갔습니다. 예배를 보는 내내 얼마나 잘 자는지 누가 보면 신생아인 줄 알겠더라고요. 예배가 끝나고 기도하는데 옆에서 잘 자던 남편이 없어진 겁니다.

'아니~ 또 어디를 간 거야?' 하며 찾았는데 글쎄, 남편은 옆자리에서 예배 보던 분이 예배가 끝나고 나가시기에 저인 줄 알고 벌떡 일어나서 손을 잡고 나갔다가 깜짝 놀라서 다시 예배당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나 비슷한 사람이 그렇게 많아?"

물었습니다.

저는 다른 아저씨랑 장을 보고, 남편은 다른 여자분 손을 잡고 예배당을 나가고, 우리 부부는 다른 사람 탓할 게 없네요.

Letter 09

딸의 시골생활

박순아 | 전북 정읍시 상동중앙로

3월 셋째 주 토요일 저녁, 직장동료의 부친 조문을 간다고 나간 남편이 나간 지 10여 분도 되지 않아서 다급하게 전화를 해왔다.

"난데 시골집에 큰일이 난 것 같다!"

"무슨 일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 자세한 건 이따 다시 연락할게."

이 무슨 소린가? 그날 낮에 부모님 댁에 가서 아버님이랑 말씀도 나누고 간식 잘 잡수시고 혈색도 좋으신 걸 뵙고 왔는데 갑자기 이게 다 무슨 말인지!

남편의 전화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초조하고 혹시라도 진짜 돌아가신 건 아닌지 불안한 마음에 눈물이 앞을 가렸다. 주체할 수 없이 울고 있는 나에게 딸들이 외투를 입혀주며 나갈 채비를 해주었다.

다시 통화가 된 남편은 종합병원 응급실. 아버님은 심폐소생술을 받는 중이셨다.

우리 세 모녀는 부랴부랴 병원으로 향했다. 다시 소생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도착한 응급실 앞. 코로나로 보호자 한 명 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입구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니 한참 후 남편이 나왔다.

"돌아…가셨어…."

그렇게 나의 시아버지는 급성 심정지로 향년 89세에 세상과 작별하셨다. 한마디 말씀도 못 남기시고. 그렇게 갑자기 먼 길을 떠나셨다.

어머니 말씀을 들으니 저녁 잡수시고 샤워한다고 욕실에 들어가셨는데 한참이 지나도 안 나오길래 들어가 보니 바닥에 쓰러져 계셨다고 한다. 119 구급차를 부르고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까지 갔지만 아버지는 목련이 막 피기 시작하던 삼월의 어느 날, 우리들 곁을 떠나셨다.

나에겐 딸이 둘 있다. 그중 둘째 딸 소희는 조금 남다른 아이다. 어려서부터 또 직장 생활하면서도 매일 할아버지께 안부 전화를 드렸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항상 알아서 전화를 드리는 기특한 아이. 어쩌다가 너무 바빠서 전화를 못 드리면 할아버지께서 먼저 전화를 주신다고도 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뵐 때마다 항상 먼저 안아드리고 사랑한다고 말하던 정 많고 따듯하고 속 깊은 딸. 그런 딸이 아버님의 장례 마지막 날, 나에게 울면서 말했다.

"엄마~ 나 할머니랑 1년만 같이 살면서 효도할 테니 허락해주세요. 그 담에 엄마 아빠께 효도할게요."

사실 우리 가족 모두 갑자기 혼자가 되신 어머님이 걱정이었다. 두 분이 63년을 함께 사셨는데 느닷없이 아버님이 떠나고 혼자가 되셨으

니 얼마나 황망하고 허전하고 또 이상하실까.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오고 싶지만 아파트는 답답해서 싫다고 하시고, 당장 우리가 시골로 들어갈 형편은 못 되니 혼자 사시게 될 어머님이 걱정이었는데 딸이 할머니랑 함께 살겠다고 하니 그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한지.

이제 겨우 스물여섯인 딸은 하고 싶고, 가고 싶은 게 또 얼마나 많겠는가! 그런데 그 모든 걸 접어두고 할머니가 할아버지 안 계신 삶에 적응할 때까지 적적하시지 않게 함께 지내며 효도하고 싶다는 것이다. 나는 정말 고마워 딸을 꼭 안아주었다.

둘째는 자신의 꿈을 위해 3년간의 직장생활을 접고 지난 2월 28일 집으로 막 내려온 참이었다. 나름의 계획을 갖고 왔을 텐데 딸은 지금 혼자가 되신 할머니와 시골 생활을 시작하는 중이다. 할머니께 분양받은 밭고랑 하나에 뭘 심을까 고민하며 행복해한다.

우리 둘째 딸 소희야! 이번 시골 생활이 네 인생의 새로운 경험과 밑거름이 되기를 응원한다. 갑자기 돌아가신 할아버지로 인해 계획에 변수가 생겼겠지만 네가 꿈꾸는 작가로서의 삶과 앞으로의 소망이 모두 꼭 이뤄지길 기도할게. 비록 네가 바라는 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도전해보는 것에 의미를 두자.

사랑한다~ 우리 딸 ♡♡♡.

Letter 10

가족사진 그게 뭐라고

홍혜경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얼마 전 외가 친척들이 함께 속해 있는 단체대화방에 알림이 울렸어요. 내용을 보니 이번에 외삼촌 칠순을 맞아 외사촌 가족의 가족사진과 영상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외삼촌이 벌써 칠순이시구나. 세월이 많이 흘렀네' 하며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고 마지막으로 사진들이 이어 나오는 영상을 물끄러미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눈물이 또르르…. 갑자기 우리 아빠가 생각났어요. 아빠는 외삼촌보다 한 살 많으시니 '만약 아빠가 계셨으면 우리도 이런 사진을 진작 찍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아빠는 6년 전, 제가 둘째 아이 낳고 조리원에서 몸조리하고 있을 때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허망하게 떠나셨습니다. 둘째 태어나고 아기 보러 신생아실 앞에서 아빠를 만난 때가 아빠와의 마지막이 될

줄은 절대 생각하지 못했죠. 항상 제 걱정이 우선인 아빠는 눈앞에 귀여운 손자가 꼬물거리고 있는데도 저의 몸 상태 걱정이 우선인 분이었어요. 딸 사랑이 남달랐던 전형적인 딸바보 아빠셨지만 무뚝뚝한 딸은 아빠의 그 꿀 떨어짐도 무덤덤하게 넘겨버리곤 해서 아빠가 많이 서운하셨을 거예요.

그런 아빠가 우리 가족에게 자주 요청하시던 게 있었는데 바로 "우리 가족사진 찍자!"였어요. 집마다 거실에 큼지막하게 걸린 가족사진이 아빠는 그렇게 부러우셨나 봅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도 않았는데 그깟 가족사진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사진관에 가서 몇십만 원이나 하는 사진을 찍고 싶어 하신 아빠가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결국 아빠의 끈질긴 요청에 못 이겨 우리 가족은 드디어 가족사진을 찍게 됩니다. 가족사진을 찍게 되었으니 아빠는 정말 좋아하셨고, 아빠의 요청에 못 이겨 함께 따라온 엄마와 무뚝뚝함의 최절정기를 달리던 사춘기 소녀인 저 그리고 누나 닮아 같이 무뚝뚝했던 남동생은 어쩔 수 없이 사진작가님의 요청에 따라 사진을 찍었습니다.

몇 주 후, 정말 커다란 액자가 집에 걸렸습니다. 아빠는 그 액자를 보며 연신 행복해하셨는데 저도 막상 그렇게 걸려있는 사진을 보니 좋았지만 "뭐~ 나쁘지 않네" 정도의 반응만 했네요.

그다음 우리 집 가족사진은 제가 결혼하면서 예식장에서 찍은 가족사진. 그런데 이날 제 결혼식 사진을 찍은 사진작가가 저의 안티였는지 사진이 하나같이 다 이상하게 나와서 저는 그 사진을 한 번 보고 나서는 다시는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빠의 가족사진 사랑은 그 뒤로도 계속되었습니다. 새 식구인 사위가 들어왔으니 그리고 첫째 손주도 태어나고 했으니 3대가 같이 가

족사진을 찍자고 하셨지만 이제 와 생각하면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그때도 '다음에 찍자'고 미뤘습니다.

아빠는 서운해하셨지만 조만간 둘째 손주가 태어나고 그러면 더 많아진 식구가 사진에 풍성하게 담길 생각을 하며 다 같이 사진 찍을 시간을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둘째 태어나면, 둘째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 양쪽에 한 명씩 할아버지 손잡고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그땐 저도 나서서 가족 의상도 골라보고 잘 찍는 사진관도 찾아보고 하려고 했는데…. 다 잘 찾아서 진행할 수 있는데…. 이젠 아빠가 안 계시네요.

둘째 태어나고 얼마 안 되어 시아버지의 췌장암 소식을 듣고 부리나케 가족사진부터 찍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과 아주버님 가족, 우리 가족, 아가씨네 가족까지 정말 대가족이 같은 옷을 맞춰 입고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그 대가족 사진이 걸린 거실 벽을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아버님은 1년의 투병 끝에 결국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족 속에 즐거운 모습을 남겨주고 가셨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빠 소원이었던 가족사진. 그때 아빠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더라면 사진 속 우리 가족 속에서 평생 온화한 웃음을 짓고 계셨을 텐데 아빠, 정말 미안해요.

Letter 11

매일 왕관 쓰는 여자

김현주 | 경남 밀양시 무안면

"주야, 니밖에 얘기할 데가 없다. 딱 한 번만 도와주라…."

눈물바람하며 매달리는 친구 말을 뿌리치지 못하고 스무 평 남짓한 전 재산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까지 해서 적지 않은 돈을 건네주었다. 6개월이면 싹 정리한다던 친구는 은행 이자 딱 두 번 내고는 연락이 안 되었다. 은행에서 날라 오는 독촉장이며 전화에 견디다 못해 찾아 나선 친구네는 언제 비워졌는지 모를 정도로 어지러웠다.

3년 전, 겨울이 시작하던 11월의 일이었다. 결국 전부였던 작은 아파트는 은행 것이 되어버렸고, 나의 큰 실수에도 남편은 말했다.

"개안타. 건강이나 챙겨라."

작은 축사에서 소를 키우는 남편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너무 쪼매라서 미안타" 그러며 방 보증금 500만 원을 건네주었다.

한 달 남짓 순간적으로 실어증이 왔고 온몸 관절마다 염증이 생겼다. 밤마다 통증에 시달리며 진통제 몇 알로 견뎠다. 내가 저지른 일이니 어떻게 하든 조금이라도 정리하고 견뎌내고 싶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작은집에서 주인 할아버지의 간섭보다 더 힘든 건 꼬박꼬박 들어가는 월세였다.

그래서 재작년 초여름 날, 난 남편 옆으로 왔다. 3년 전 남편이 혼자서 지어 올린 15평 남짓한 아담한 집이었다. 남편이 소를 키우겠다 해서 시작된 주말부부 10년 차. 같이 있기보다는 혼자서 지내는 게 더 편해져 버린 시간이었다. 작은집에 두 집 살림을 합쳤으니 옷이며 그릇이며 이불이 왜 그리도 많은지 일주일 넘게 집안 정리를 했다.

스물셋, 첫 직장이었던 교사 생활부터 30여 년간 쉬는 날 없이 어떤 형태로든 아이들을 가르쳐 오던 내가 또 다른 무언가 '일'을 찾는다는 건 쉽지 않았다. 몇 번이나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그래서 합격한 곳이 보험 영업을 하는 콜센터였다.

난생처음 하는 영업이라 너무 힘들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다. 살기 위해 일을 했지만 어쩌면 일이 나를 살게 했는지도 몰랐다. 돈을 벌러 다니는 일은 숭고한 일이고, 그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한다는 건 참 소중한 일이었고, 매일 두 시간씩 덕암리에서 밀양역까지 나의 출퇴근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는 남편의 맘도 너무 고마운 일이었다.

"안녕하세요? OOO 고객님 맞으신가요? 저는 OO 보험 상담원 김현주입니다. 전화 드린 건 다름이 아니라…."

하루 종일 300번이 넘는 똑같은 멘트를 하면서 절대 목소리를 높여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지쳐 보이지도 않게 '파'와 '솔' 중간 정도, 그러니까 '파#' 정도의 톤으로 상담해야 했다. 너무나도 친절해서 감사한 고객도 있고, 황당하게 버럭 소리를 질러서 나도 덩달아 '높은

도' 음으로 응대하는 불상사도 있었다.

그날도 그랬다. 오전에 상담했던 60대 고객은 미안할 만큼 친절했다.

"이리 열씨미 말하는데 미안해서 우짜꼬. 내가 보험 가입할 능력은 안되고 이리 말을 마이하게 맹글어가 미안시러브서 우짜꼬…."

정말이지 외려 제가 전화를 드려서 귀찮게 해드려서 부담스럽게 해드려서 죄송하다고 하고는 상담을 마쳤다. 그리고 나른하고 조금은 지루해지는 오후 두 시쯤이었다.

"안녕하세요? OO 보험 상담원 김현주입니다. OOO 고객님 맞으시죠? 이번에 치매 진단되시면 생활비 드리는 상품이 있어서 안내 차 전화 드렸습니다."

"그려? 나 하나 해주더라고."

"네? 가, 가입하신다고요?"

"그려. 나가 안 그려도 치매 보험 하나 준비해볼까 했는데 잘 되었구먼."

8개월 동안 콜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단박에 내 설명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계약이 된다는 게 정말 믿기질 않았다.

"고, 고객님 지금 가입 도와드릴까요?" 자꾸만 말이 꼬였다.

"그라제. 두 번 말하믄 입만 아프제. 후딱 해보더라고."

청약 진행 화면으로 전산을 바꾸고 최대한 프로답게 '파#'의 톤을 맞추어서 청약서를 읽기 시작했다.

"OOO 고객님, OO 치매보험 가입에 동의하십니까?"

"그려 보든지, 샥시가 알아서 허소."

"고객님, 그렇게 애매한 답을 하시면 녹취 확인 안 되시거든요. '네'라고 답을 해주셔야 해요."

"뭣이여? 시방 나가 일흔셋인디 샥시헌티 말을 높이란 말이여?"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질문에 대한 답으로 '네'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두 시간의 기나긴 녹취가 끝났다. 프로가 되기 위해 두 시간 동안 내 목소리는 '파#'이여야 했다.

매일 아침 팀 미팅을 하고, 해내어야 하는 업무량이 주어진다. 물론 그 업무량은 결국 계약으로 보여줘야 하는 숫자다. 귀가 멍할 만큼 전화기와 씨름해도 거절로 싸늘하게 되돌아오는 답이 90% 이상이다. 하지만 내가 택한 일이고 결과에 대한 책임과 가끔은 뒤따라오는 계약 체결의 뿌듯함까지도 온전히 내 몫이다.

텀블러 가득 커피를 내리고, 또 다른 텀블러에 마실 물을 가득 채우고, 책상 위에는 실장님이 아침마다 건네주는 메모용 노트, 상품자료집 그리고 최소 2분 정도는 쉼 없이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읽어 내려갈 수 있는 스크립트, 그러니까 상담원들의 대본을 질서정연하게 놓는다. 짧은 시간이지만 매일 아침 반복되는 그 행동이 가끔은 성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전화를 걸기 위한 헤드셋을 머리 위로 쓰면서 아직도 가슴이 설레기도 한다는 건, 내가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열심인 사람이란 증거가 아닐까. 헤드셋을 쓰면서 생각한다. '나만의 왕관'이라고…. 헤드셋을 쓰면서 지내온 2년여의 세월이 내겐 견뎌낼 힘과 용기와 금전적인 자유를 주었다.

아침 7시 반 남편의 트럭을 타고 무궁화 기차와 시내버스까지 1시간 50분의 출근 시간 그리고 오후 5시면 역순으로 되돌아오는 퇴근 시간. 하루 중 네 시간이 출퇴근 시간으로 소요된다. 하지만 그 시간조차 지금 내게는 감사하고 소중하다. 나는 매일 왕관 쓰는 여자다.

Letter 12

아버지는 김치 공장 조장님

이진영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저희 아버지는 올해 72세이신데 거의 10년째 충북 청주시 외곽에 있는 김치 공장에 다니십니다.

자영업을 하시던 아버지는 60세를 조금 넘기셨을 때 경기가 좋지 않아 적자를 많이 보면서 가게를 접었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며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연세가 있으신 아버지의 재취업은 쉽지 않았지요. 속상해하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 딸로서 많이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엄마와 아버지 두 분의 생활을 직접 해결하겠다며 완강하셨습니다.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의 조그만 집을 사서 두 분은 이사하셨고, 그곳에서 만난 이웃 한 분께서 동네에 있는 김치 공장에서 직원을 뽑고 있다고 귀띔을 해주셨더군요.

아버지는 직장 생활을 해 본 적도 없었고, 김치 공장 같은 식품 공장은 더더욱 경험이 없어 걱정이 많으셨지만 아직은 쉴 수 없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서 공장에 찾아가셨습니다. 막상 공장 사무실 앞에 서니 정말 떨리셨다고 해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직원들 예닐곱명이 앉아 있는 사무실에 아버지가 들어가서 인사를 하니 다들 의아해하셨지요.

"네… 그… 저… 여기서 직원을 구한다고 해서 와 봤습니다."

직원들은 난감해하는 표정이 역력했답니다.

"저희는… 일이 좀 힘들어서요… 젊은 사람을 뽑고 있어요. 죄송해요."

그 말에 실망한 아버지는 그대로 돌아서다가 문을 나서는 순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한마디 하셨답니다.

"저도 힘든 일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아버지는 연락처를 남기고 집으로 돌아오셨고, 며칠 후 회사에서 지금 일손이 부족하니 1년만 일해보자고 연락을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배추를 절이고 속을 만들어서 버무리고 완성된 김치를 포장해서 출고하는 과정이 쉴 새 없이 계속되는 공장에서 일을 배우느라 진땀을 빼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일하셨지요. 처음에는 10년 이상 일하신 베테랑 직원 아주머니들이 아버지를 영 못 미더워하셨대요. 그럴수록 아버지는 정말 열심히 일하셨고,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일, 꺼리는 일도 두 팔을 걷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셨답니다.

그렇게 매일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 지났고, 그해 연말 회사 종무식에서 아버지는 '우수 사원상'을 수상하고 금일봉도 받으셨지요. 아버지는 상장과 금일봉을 흔들면서 활짝 웃는 얼굴로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정말 기뻐하셨던 그 웃음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1년이 지나고 아버지는 계약이 연장되셨고, 그렇게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일하고 계세요.

주어진 업무를 열심히 하는 것에 더해서 회사에서 하는 교육과 청소 업무도 최선을 다하셔서 김치 공장 '절임조 조장'으로도 임명이 되셨어요. 아버지를 못 미더워하던 아주머니들이 이제는 아버지를 "조장님"이라고 부르며 함께 즐겁게 일하고 계십니다.

김치 공장에는 젊은 외국인 노동자도 일하는데 회사 기숙사에 살고 있어서 아버지는 주말에 일하지 않는 날에도 회사에 가서 타지에서 힘들게 일하는 젊은 외국인 총각들에게 시내 구경도 시켜 주시고, 한국 음식점도 데려가시고, 바람도 쐬어 주시더라고요. 집에 데려와서 맛있는 걸 해주시기도 하고요.

노인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데 이렇게 연세 드신 아버지에게 일자리를 주신 김치 공장에도 감사하고, 무엇보다 행복하게 출근하고 즐겁게 일하시는 아버지께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며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는 아버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늘은 아버지께 전화드려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정도로 세월을 무색하게 만드는 아버지의 열정을 존경한다고 말씀드려야겠어요.

Letter 13

직장동료가 사돈이 되다

조성남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저는 안산에 사는 57세 두 딸의 엄마입니다. 특별하고도 기쁜 사연 전하고 싶어 큰맘 먹고 없는 글솜씨로 펜을 들었습니다. 제 큰딸이 시집을 가거든요. 저와 사위 엄마는 36년 지기! 직장동료로 만나서 언니 동생 하며 지내는 평범한 사이였답니다.

언니는 아들 둘, 저는 딸 둘 키우면서 애들 학교 다니는 얘기, 성적 얘기, 남편 흉도 보면서 서로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스스럼없이 지냈습니다. 아들 딸 연애사까지 다 꿰고 있을 정도로요.

그러다 2019년 4월, 백운호수에서 엄마인 우리 둘이 아들 딸 소개팅을 해줬어요. 둘 다 연애 휴식하던 때거든요. 인연이었는지 둘이 올해 5월 14일 결혼합니다. 아직도 꿈만 같아요. 언니가 농담으로 우리 딸을 며느리로 보내라 했었는데 실제 연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이렇게 인연이 되려고 20살 청춘에 만나 언니랑 37년을 꼭 붙

어 지냈나 봐요. 언니랑 저는 요즘 새로운 호칭에 익숙해지려고 농담하듯 '사부인~' 하며 연습 중입니다.

작년 11월엔 첫 인연이 됐던 백운호수 한정식집에서 상견례를 했는데, 보통 상견례 하면 어색하고 뻘쭘하고 엄청나게 조심스러워서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라던데 언니랑 저는 사돈이 된 '기쁨의 축배'를 들었답니다. '브라보~ 브라보~' 외치면서요.

요즘 저의 일상은 축하 인사 받기와 아이들 결혼 성공담 전하기입니다. 목이 쉴 정도예요. 다들 드라마 같다고 하거든요. 청첩장을 돌리면 훈남 사위 얻었다고 엄청나게 부러워해요. 제가 점 찍어뒀던 사윗감이라 소개팅도 직접 주선했다고 하면 깜짝 놀라더라고요. '우째 이런 일이?!' 하고요. 사돈이 37년 지기 언니 동생 사이라고 하면 또 한 번 놀라고 어떤 분은 기절까지 했어요(농담입니다~).

시집보내면 딸 가진 부모 마음이 힘들다던데 저 역시 서운하죠. 그러나 34년을 지켜봐 온 사위인지라 걱정은 없습니다. 심성도 곱고, 성실하고, 젤 중요한 제 딸을 깊이 사랑해주는 게 느껴져서 든든하고 뿌듯하거든요. 제 기준엔 박서준 씨가 최고의 연예인인데 제 눈엔 우리 사위가 박서준 씨보다 더 멋져요.

아들만 둘 있는 언니에겐 딸이 생겼고 딸만 둘 있는 저에겐 든든한 아들이 생겼습니다. 이 정도면 밑지는 장사는 아니죠. 우리 딸한테는 시부모가 아닌 가슴으로 만나는 든든한 엄빠가 생기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 역시 우리 사위의 든든한 버팀목 엄빠 노릇 잘해야겠죠. 아이들 결혼시키며 드는 생각이 서로 부족한 걸 채우면서 살아가는 게 결혼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사위 딸, 잘살라고 여성시대에서도 축하해주세요. 우리 딸 사위 포에버♡ 사랑해요♡

Letter 14

지하철 안에서

조병진 |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종점이 다가오니 서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지하철 안은 북적거리지 않았다. 신현역에서 잠시 멈추니 줄 서 있던 몇 명이 승차를 했다. 그 중엔 정장을 입지는 않았지만 단정한 외모에 희끗희끗 흰머리가 많아 보이는 쉰은 족히 넘어 보이는 중년 남성도 있었다. 그 중년 신사는 비어있던 내 옆자리에 앉았다.

승차할 때부터 통화하는 것 같았는데 지하철이 출발하고 한참이 지나도록 전화를 끊지 않았다. 연신 '아버지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을 보니 중년 신사의 아버님하고 통화를 하는 듯했다.

아버지가 손주들에게 하지 못한 말씀이 있었는지 아들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언제든 마음 편히 하시라고 몇 번이고 얘기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통화를 끝맺으려는지 "아버지 따뜻하게 지내세

요” 약간의 사투리가 섞인 말투로 따뜻하게 지내시라는 말씀을 여러 번 당부한 후, 내가 전혀 상상도 못 했던 말로 통화의 끝맺음을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어? 어린아이도 아니고 오십은 족히 넘어 보이는 남자가 이런 말을 이렇게나 쉽게 한다고? 그것도 사람 많은 지하철에서! 다들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저렇게 아무 거리낌이나 어색함 없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니?’ 놀라웠다.

그 통화의 끝맺음 인사말은 이거였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헐… 나도 민통선 안에 잠들어 계시는 아버지가 너무나도 그립고 보고파서 혼자서 남몰래 눈물 꽤나 흘리는 남잔데, 이런 나 역시도 ‘아버지 사랑합니다!’라는 그 흔한 말을 아버지 생전에 쉽게 내뱉어 보지 못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글거리거나 유치하게 들리지도 않았다.

옆자리 중년 신사와 그의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버지 음성을 들으며 다정한 부자의 모습이 어렴풋이 그려졌다.

그 말이 왜 이리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르겠다. 그냥, 그냥… 분홍빛 따스함이 내 가슴에 스며들었다.

Letter 15

나의 애장품 월간 여성시대

김영순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저는 대구에 있는 작은 전통시장에서 43년째 건어물 가게를 하고 있는 상인입니다. 전후세대인 저는 물질적으로 힘든 시기에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교과서 살 돈이 없어서 이웃 언니 오빠들 보던 책을 물려받아서 공부했습니다. 유독 1학년 1학기 국어책은 반 이상이 찢기고 떨어지고 너덜거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웃에 사는 친구 책 빌려 마분지에다가 잉크 물 찍어 펜으로 글씨도 쓰고 그림을 그려서 검정 고무줄로 묶어 이 세상에 한 권뿐인 국어책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나는 아버지 정성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받아쓰기 시험 성적을 줄곧 잘 받아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큰딸 사범학교 보내어 학교 선생님 시켜야지” 그러셨습니다. 인생은 생각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 육 남매 중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기성회비도 제때 내지 못했습니다. 담임선생님은 집에 가도 돈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수업 시간에 집으로 가서 기성회비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주는 엄마 마음 아플까 봐 동네 어귀에서 서성이다가 그냥 학교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우리 집안 사정을 잘 아는 담임선생님은 상급 학교 진학을 포기하기에는 실력이 아까우니 시험이라도 한번 쳐보라고 했습니다. 1966년 대구에 있는 중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같은 반에서 공부해도 중학교 진학반 아이와는 책상 위치도 달랐습니다. 앞자리에는 진학반 아이들이 앉고 저는 뒷자리에 앉으니 키 큰 친구들에 가려서 칠판 글씨도 잘 보이지 않았답니다. 방과 후 과외공부는커녕 수련장이라는 문제집도 없고 전과도 없이 공부했습니다.

평소에 꾸준히 책 읽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준비도 없이 중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한 것 같습니다. 합격의 기쁨이 어떤지도 모르고 진학의 꿈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합격은 했지만 중학교에 보내달라고 부모님께 한마디도 못 했습니다. 옛 속담에 책 속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중학교 진학은 못 해도 공부할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배우고 싶었습니다. 동생들이라도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웃 언니가 다니는 모직 공장에 여공으로 취직했습니다. 대구에서도 변두리 산동네인 우리 집에는 전기 시설이 취약했습니다. 밤이면 희미한 호롱불 아래 강의록으로 검정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 접하는 영어는 생소하고 어려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 몇몇 친구들은 월급날이면 회사로 찾아오는 출판사 외판원에게 할부 책을 사서 바꿔가며 읽었습니다. 카네기 인생론, 한국문학 전집, 시와 소설 등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일찍 책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초등학교 6년 졸업할 동안 한 번도 새 책으로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내 속에 책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책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가게 단골손님 중에 장수 할머니는 29년 전쯤부터 매달 10일이면 한 번도 빠짐없이 기업은행에 들러 여성시대 책을 가게로 가져옵니다. 여성시대 애청자이신 장수 할머니는 공과금 납부를 타 은행을 이용하다가 기업은행으로 바꾸고 매달 10일에 공과금 납부하고 여성시대 책을 가져옵니다.

우리처럼 바삐 사는 사람들이 읽기에는 작아서 좋고 내용도 삶의 애환이 묻어 있는 나의 이야기 같아 공감하면서 때로는 눈물 흘려가면서 이웃 가게 상인들이랑 단골손님,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함께 돌려가면서 읽어봅니다. 다 읽은 책들은 버리지 않고 모아둡니다. 잠을 줄여서 책을 읽다가도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하면 소장하는 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더러는 분실된 책도 많습니다.

뒤 볼 새 없이 힘든 줄 모르고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코로나19가 나의 장삿길을 막았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라 몹시 두려웠습니다. 혹시 가게에 확진자가 오면 어쩌나 손님이 오면 의심부터 합니다. 건어물 가게 한 지가 43년이 되어도 일요일 외에는 한 번도 가게 문 닫은 적 없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고는 나의 모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대구에서 확진자가 마구 늘어나던 시점에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만 같은 세상에서 갈 길을 잃었습니다.

여태 버리지 않은 나의 애장품인 먼지 묻은 박스 안에 든 책을 꺼내 들고 남편이랑 같이 시누이가 사는 시골집에 갔습니다. 책 속에 빠져 한 달간 지내다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다시 읽어보는 여성시대 책들은 불안한 마음을 담담하게 해줍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사회적 거



리두기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한 달간 쉬다가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가게 문 열고 열심히 손님을 맞이합니다.

나의 애장품 책은 몇 박스나 되는 분량입니다. 지난가을에는 결혼해서 분가한 아들 방을 내 책방으로 꾸몄습니다. 아들이 사용하던 책상이지만 난생처음 나의 책이 책꽂이에 가득합니다. 손숙, 김승현 씨가 진행하던 1993년 8월호부터 280여 권이나 되는 많은 여성시대 책자가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노후에 혹시라도 요양병원이라도 가면 그곳에서 다시 읽어 보려는 마음도 가져봅니다. 여성시대 덕분에 새 책으로 가득 채워진 나의 책상을 보면서 나만의 행복에 겨워합니다.

이달의 손편지

하늘로 간 아들

김명자 | 전북 군산시 부곡길

기운찬이 엄마 ~ 하면서 내손을 꼭 잡아주며 양볼에 뽀뽀를 퍼붓던 우리아들 그맘이 마지막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안아보면 우리아들 사랑한다고 내보다 사랑했다고 안해줘도 그맘을 못해준게 후회가 됩니다.

기찬이 그날(2019. 5. 12일)이 생각납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엄마의 아픈 심장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 아들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울고 또 울고 수없는 날이 지났지만 오히려 시간이 더욱더 또렷해지며 현실이라는 것도 믿어야 하고 믿기가 힘듭니다. 평소 착한 사람처럼 갑작스럽게 숨을 멈추기 전까지 힘들다는 말이 다 나왔다며 집에 왔습니다. 너무 좋아 감동했다며 기뻐했는데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아들 모습을 똑똑히 보았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작년 겨울 아들내외 36세 창한테서와 개구쟁이 아들 다섯살 건이도
손녀 서윤이 부부 모두 직장 다니느라 아들이 원하던 엄마와
처가가 있는 고향 가까운 전남 장흥 경관지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근무하던 책 근무하지 못하고 병이나 걸렸습니다.
병명은 악성간암 종양이 벌써 13cm나 커버렸다고 했습니다.
그이기년 11월, 악몽같은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 1월 10일 서울 큰병원에서 악성종양을 떼어내는
대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이 잘되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들은 이젠 살았다는 안도감과 희망에 부풀었고 가족들은
기적이라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간에 전이된 종양이 처음처럼 커지고 오른폐에는
폐 까지 전이되어 수술할 수도 없고 항암제도 소용없다고
포기하지않고 열심히 힘들게 투병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는 뇌에까지 전이가 되어 아들이름이 약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해 내가 죄인같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며 좋은날 갈곳과 제탓이라며 엄마로
숙상하고 아름답게 키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반항했던 개구쟁이 아들이 너무 어른스러 아팠다고 했습니다
소원리스트에 "아들 초등학교 입학식 참석하기"를 써놓고 애타게
그날까지만이라도 버티길 바랬던 안타까운 아들이 느껴져
가슴이 아팠다. 그 개구쟁이 아들이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항상 손에 길을 쥐고있던 휴대폰이 사랑하는 가족들 엄마 누나들
아내와 아들, 장인 장모님 모든 다른 가족들에게 보물보다 유서를
남겼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한데 못가는 하고 오래를 걸치못하고
가서 전송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개구쟁이 아들에게는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후이 되면까지 그때그때
상황이 엇게 살아가며 자상하고 세심하게 마음써 기억 깊고 긴
편지를 남겨놓았습니다. 어린 아들을 안타까워 하며 장문의 손을
쓰면서 오라나 얼굴 보고싶고 그리울지 생각할수록 가슴이 미어집니다.
우리아들은 특별히 아픈 손가락입니다. 누나들이 막내로 태어나
귀염 아들이었지만 초등학교때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 셋을
혼자 책임지다보니 항상 제때 챙겨주지 못하고 짠하게 컸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힘들때마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든든한 아들이었습니다
엄마에게 부고장을 안보는 아들이 되겠다던 약속을 지키려고
연신히 노력해서 대학교 그학년때 ~~경찰공무원~~에 합격했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주말이면 엄마를 위해 밥하고 청소해서 용돈과 학용품값을 벌어 썼습니다. 왜 용돈달라고 하지 않느냐고 하면 이만큼 컸는데 창피하게 용돈 타 쓰면 되겠냐고 했습니다. 오히려 어떤 엄마가 여행이라도 가면 맛있는 사진사면서 용돈을 손에 쥐어주겠냐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우리아들 소식듣고 여러 가게주인들께서 상사 동기분들 아버님께 미치고 피곤함을 무릅쓰고 몇시간을 달려 농수 창원까지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려온지 그게 없는 채 못된 직원분들께 피해만 끼쳤을 우리아들을 안타까워 하시며 달려와주신 장흥경찰서장님 이하 상사 동료분들 너무 감사한 전송합니다. 또 대학 동기 동창들과 자장을 주고받고 안타까운 친구를 생각하며 장지까지 따라와준 고마운 친구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들이 없어 감사한 분들께 문자로 감당하는 못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그 큰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늘에서 보고있을 우리아들 아름이기도 하겠지요.

박 세은 엄마올림-

여성시대 사진방



[2735] 주차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정말 덥습니다. 취미로 돌에 그림 그리기를 하며 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



[6073] 군 제대하고 복학 전까지 택배 상하차 알바하고 있습니다. 오늘 물량은 평소보다 엄청 많은데 날씨까지 더워 조금 힘들겠지만 이어폰으로 여성시대 들으며 힘내보겠습니다.



[5212] 체리 포장하고 있어요.



[9029] 저는 매년 개구리참외를 심어 과일로도 먹고 장아찌도 담고 있어요.



[8722] 우리 딸 웨딩 사진입니다. 아들 낳고 잘살고 있습니다.



[5378] 복숭아밭에서 봉지 씌우며 라디오 듣고 있어요.

오늘의 추억

글/그림 2B

서울 성북구 고려대로의
여성시대 가족 심상흔 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탤런트 안문숙 씨가



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친한 사람들은 저의 매생이 친구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한동안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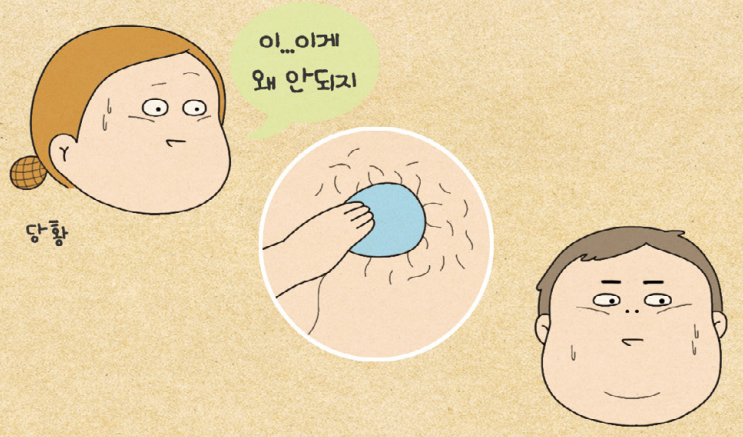


종합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심전도 검사에 필요한
전극 달린 줄을 여러 개 가져오셔서
붙이려는 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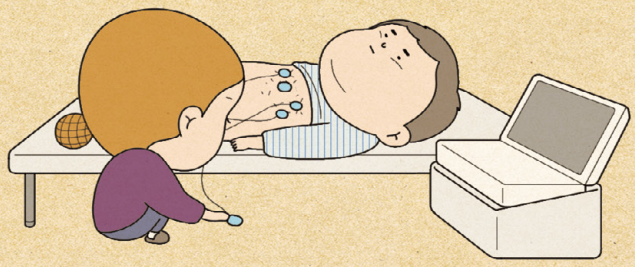


피부에 부착되는 전극 센서를
저의 매생이 친구들이 자꾸 밀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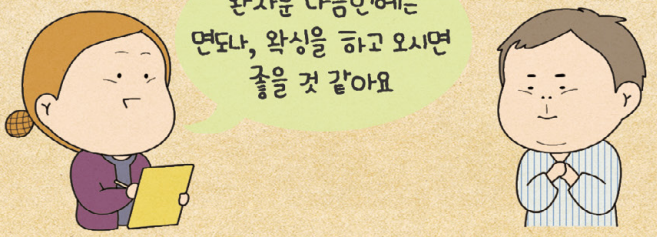
간호사 선생님은 경련짝은 얼굴로
스펀지에 물을 적셔 다시 가슴에 접착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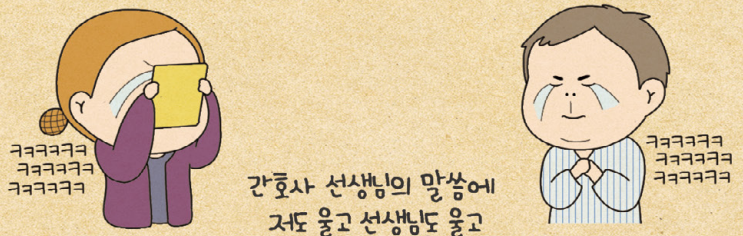
원망스러운 센서는 다시 바닥으로 추락



결국 전극을 제 가슴에 살포시 올려놓은 채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검사를 마치고 침대에서 내려온 제게





간호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도 울고 선생님도 울고
매생이도 울었습니다

환자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다

IBK기업은행 부평지점 거래고객
강남 더드림병원 도관홍 대표

글 | **문수민**(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더드림병원은 6개 과의 전문의가 세부 협진 시스템을 통해 진료하고 진단부터 비수술치료에서 고난이도수술치료, 재활까지 환자 회복의 전 과정을 책임진다. 항상 환자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1:1 맞춤 진료를 통해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사회 건강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인천에서 출발한 더드림병원이 이제 대한민국의 중심, 강남에서 새롭게 시작한다.

더드림병원은 관절센터와 척추센터뿐만 아니라 내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뇌신경과 등 총 6개 과의 진료과목을 개설하고 각 전문의가 세부 협진프로그램을 통해 환자를 치료한다. 질환에 대한 단면적인 진단이 아닌 입체적인 진단을 통해 환자들에게 정확한 치료 방향을 제시하고 알맞은 치료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더드림병원은 관절·척추 특화 병원으로 많은 환자에게 인정받고 있다. 특히 관절센터의 '무릎 인공관절치환술'과 척추센터의 '양방향 척추 내시경'은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무릎 인공관절치환술'의 경우, 2017년 전국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들과 함께 해외 의료진을 대상으로 인공관절 컴퓨터수술 학회를 유치하여 개최할 정도로 학술적 업적을 인정받았다. 더드림병원은 이를 바탕으로 컴퓨터를 이용해 환자 개개인에게 맞게 관절 축을 맞추는 수술을 시행하여 수술 결과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은 기존의 척추 수술과 달리 5mm 정도의 미세한 절개를 통해 내시경과 기구를 이용하여 수술을 진행한다. 그 때문에 추간판 탈출증과 협착증에 대해 보다 세밀한 수술이 가능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이 빠르다. 또한 허리뿐만 아니라 목 부위의 척추도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다수의 숙련된 전문의가 포진되어 있다.

더드림병원은 이처럼 뛰어난 의료 업적과 실력 있는 의료진을 바탕으로 지난 2016년 인천에 첫 개원한 데 이어, 2022년 3월,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 강남에 두 번째 더드림병원을 개원했다. 더불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으로 관절·척추 부분에서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심사하여 '대한민국 메디컬헬스케어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그 명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인천에 이어 올해 3월 강남에도 더드림병원을 개원했습니다. 최신





의료시설과 실력있는 의료진으로 구성된 강남 더드림병원이 세계가 인정하는 관절·척추 특화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겠습니다."

더드림병원은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인천 더드림병원이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선정한 '우리 구 착한 기업 1호'가 되기도 했다. 관절·척추 질환을 앓고 있으나 의료비가 부담스러워 치료받지 못하는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정기 기부금을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한 공을 인정받은 것이다. 더불어 매년 사회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에서 건강강좌를 열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골다공증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시행하는 의료지원 행사에 참석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남 더드림병원을 개원한 후에도 지역사회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은 계속된다. 서울의 K리그 축구단 'FC서울'과 공식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축구선수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지역주민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 지역사회 의료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IBK기업은행 부평지점 이대범 지점장은 "IBK기업은행 부평지점과 더드림병원은 인천 개원부터 강남 개원까지 쭉 인연을 맺으며 두터운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고 돈독한 인연을 자랑했다. 나아가 "항상 환자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더드림병원이 강남에서도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규모의 확장이나 매출 증대보다 환자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할 줄 아는 따뜻한 병원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강남 더드림병원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





강남 더드림병원 도관홍 대표(왼쪽)와 IBK기업은행 부평지점 이대범 지점장

강남 더드림병원 도관홍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환자에게 진정성 있게 치료하라.
2. 환자의 입장에서 최적의 치료 과정을 고민하라.
3.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라.

강남 더드림병원

대 표 도관홍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404
전 화 1661-1177
홈페이지 http://thedream-gn.kr/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임플란팅코스메틱'으로 K-뷰티를 이끌다

IBK기업은행 호계중앙지점 거래고객

조성코퍼레이션㈜ 조창묵 대표

글 | **문수민**(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조성코퍼레이션은 천연에서 추출한 마이크로니들(Micro-needle, 스피큘)을 핵심 원료로 화장품을 개발하여 '임플란팅코스메틱'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기능성 화장품 분야에서 2022년 대한민국 우수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며 제품을 인정받은 조성코퍼레이션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K-뷰티의 선두 주자를 꿈꾼다.

조성코퍼레이션은 '임플란팅코스메틱'의 선도 기업이다.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피부에 심는 화장품을 개발하여 '임플란팅코스메틱'이라는 신개념 화장품 분야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 화장품에 고순도로 정제된 천연 미세침을 첨가하여, 발랐을 때 피부를 미세하게 자극시켜 피부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임플란팅코스메틱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천연 해면에서 추출한 마이크로니들(Micro-needle)을 모공에 침투시켜 생리학적 피부 재생 반응을 촉진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침투 시에 유효물질이 피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모공 공기 침투를 유도해 피지 분배 밸런스를 조절하게 되는데요, 이 유효물질은 4~12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부를 자극하고 이후 생분해됩니다."



조성코퍼레이션은 마이크로니들(Micro-needle)을 핵심 원료로 미세약초침, 더머필, 원데이필 등 전문가용 필링 제품을 개발하였으며 현재 병원, 에스테틱, 한의원에서 사용되고 있다. 작년에는 일반 소비자도 가정에서 안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한 제품을 개발하여 '피라(PIRA)'라는 브랜드를 론칭하고 온라인 시장 및 해외에서 판매하고 있다.

조성코퍼레이션의 제품은 대한한의사협회를 통해 한의사들에게 먼저 인정받은 제품이다. 2008년 창업 후 천연 필링 제품을 개발해 몇몇 한의사에게 소개하고 시술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 대한한의사협회 세미나를 통해 많은 한의사에게 소개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당시 세미나를 듣고 100여 곳의 한의원에서 조성코퍼레이션의 제품을 선택하였고 전문가의 인정을 받은 제품으로 회사의 신뢰감을 쌓을 수 있었다.

이렇게 전문가의 인정은 받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은 쉽지 않았다. 중소기업 제품에 브랜드 파워가 약하고 '임플란팅코스메틱'이라는 용어가 낯설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상당 부분 OEM을 통해 시장에 제품을 내놓고 있지만, 이미 동남아에서는 브랜드 '피라'의 제품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태국에서는 홈쇼핑을 통해 '피라'의 필링포유 제품을 100만 개 판매하였고, 베트남, 홍콩, 일본, 싱가폴, 중국 등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가 힘들어 주춤하지만, 기존 고객의 충성도가 높아 매출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저희는 기술 개발에 특화된 회사예요. 개발 라인과 생산 라인만 갖추고 있고 마케팅은 전시회를 통한 홍보 외에는 따로 하고 있지 않아요. 처음에는 한의원이나 에스테틱에서 사용하는 전문가용 제품만 취급했는데 이제 '피라'라는 브랜드를 통해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소개가 되었으니 제품을 다양화하고 대량 유통의 발판을 만들어 임플란팅 코스메틱 시장을 크게 키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IBK기업은행 호계중앙지점 이상진 지점장은 "조성코퍼레이션의 제품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며, "우리 지점 여직원들의 두터운 팬심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먼저 인정받은 조성코퍼레이션이 미래 K-뷰티를 이끄는 주역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연구소, 공장 등 회사를 확장할 때마다 함께했던 IBK기업은행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성코퍼레이션의 성장을 응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머지않아 '바르는' 화장품에서 '심는' 화장품으로 코스메틱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뀔 거라 확신하는 조성코퍼레이션의 미래가 기대된다.





조성코퍼레이션 조창묵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남들이 하지 않는 분야를 개척하라.
2. 기술력이 경쟁력이다.
3. 긍정적으로 사고하라.

조성코퍼레이션㈜

대 표 조창묵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27번길 38, 1007호
전 화 031-345-6881 **홈페이지** www.chosungcorp.co.kr

코너 속 편지

장용의 단·필·충
81 마지막 전우, 토관병
85 두 어머님과 두 조교
89 여대생들 군부대에 들어가다

사랑탐구생활
94 나의 신부에게
99 새로운 인생

주말엔 투유
101 만날 수 없는 딸에게
103 동생이 된 영자 씨에게
105 그동안 고생 많았어
107 쫑이에게



일러스트 | **조신애**

장용의 단·필·충

마지막 전우, 토관병

박현규 | 강원도 춘천시

부산에서 2000년 1월 억수로 추운 겨울!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던 바로 그곳,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영하 3도면 집에서 나오지 않던 부산 사람인 저에게는 논산훈련소의 날씨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자대배치는 따뜻한 남쪽으로 가면 된다.'

이를 악물고 6주 군사훈련을 참았고, 드디어 자대 배치 날! 동기들 말로는 불러주는 숫자가 낮을수록 전방이고 높은 숫자 사단이면 후방이라고 하더군요. 부산 53사단을 알고 있던 터라 저는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40 이상 가게 해주세요. 제발 40 이상 사단으로.'

그때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235번 훈련병!"

"넵!"

가슴이 콩닥콩닥하던 그 순간.

"6사단!"

어흑!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렇게 많은 숫자 중에 26도 아니고 16도 아니고 6이라니! 현실을 믿고 싶지 않던 그 순간, 조교가 또 말했습니다.

"6사단! 철원평야! 쌀이 아주 맛있고 무지하게 추운 곳이지. 고생해라!"

5월 초 자대로 가는 버스를 타고 6사단으로 가는 길,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철원 평야를 지나 '지뢰 조심'이라는 팻말을 보며 한참을 들어간 곳은 DMZ. 5월 초지만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무언가 예고라도 하듯 진눈깨비가 내렸고 아직 녹지 않은 눈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정말 춥더군요.

그래도 무념무상 모든 걸 내려놓고 생활하다 보니 자동으로 계급도 오르고 나름 군 생활도 재밌었습니다.

겨울이 막 시작될 때쯤엔 중대 행보관이 토끼 두 마리를 주면서 새로운 임무도 주었지요.

"내년 복날에 잡을 거니까 이쁘게 잘 키워라."

그날부터 저는 운전병이자 일명 토관병! 토끼 관리병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애지중지 지극정성으로 키웠어요. 풀 한 포기 자라지 않는 철원의 겨울, 토끼들을 위해 식당 짬통을 뒤지며 배추와 양배추 잎을 주워 먹이고 재웠습니다. 우리 토끼 병사들은 건빵을 정말 좋아해서 제 몫으로 생긴 건빵도 모두 아낌없이 토끼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 행정보급관도 "이게 토끼야 돼지야? 너 아주 토실토실하게 잘 키웠다. 다음 장날에 토끼 4마리 더 사다 줄게. 걔들까지 마저 잘 키워서 복날에 연대장과 다 함께 회식하자."

그러면서 행보관은 토끼 6마리를 혼자 돌보긴 힘들 거라며 부사수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토끼 사병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뜨거운 사랑을 꽃피워 6마리에서 13마리로 대식구를 이루었지요.

"너 진짜 소질 있다. 이 정도면 간부 전체 회식도 하겠어. 대단해! 너 4박 5일 포상휴가 가라."

토관병에게 포상휴가를 줄 정도로 연대 모든 간부는 복날 있을 회식에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저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저녁 6시 토끼 사병들과의 저녁 점호를 위해 토끼집으로 갔습니다. 13마리가 있어야 하는데 12마리밖에 없더군요. 부랴부랴 보고를 했습니다.

"당직 사관님! 토끼 한 마리가 안 보입니다!"

그러자 용수철처럼 튀어 오른 당직사관은 바로 마이크 앞으로 달려가 사이렌을 울렸습니다.

"오대기 출동! 오대기 출동!"

그 소리에 샤워하다가 급하게 전투복을 입었는지 머리에는 하얀 거품이 한가득 있는 사병, 빨래하다 빨랫비누 들고나오는 사병, 군화 들고나오는 사병. 일단 차량에 최대한 빨리 탑승해서 5분 이내에 위병소를 지나야 하니 모두 정신이 없었습니다. 무전으로 당직사관은 상황을 전파했다.

"막사 뒤편 적 일 명 출현! 비무장이며 네 발로 걷고 흰색 옷을 입었으며 매우 빠르고 날렵하니 꼭 생포해야 한다."

그렇게 10분쯤 지났을 무렵 오대기에서 무전이 왔습니다.

"적 일 명 막사 뒤편을 지나 지금 연병장을 지나고 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서 헉헉거리는 무전 속에서 박진감과 생동감이

느껴지는 동시에 토끼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비상을 돌리는지 동료들에게 미안하면서도 탈영한 한 마리를 잡지 못할까 봐 진땀이 났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수색 끝에 다행히 탈영병은 생포됐고 저는 두 번 다시 토사병들의 탈영이 없도록 더욱더 철통 수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더군요. 어느 날부턴가 토끼 군단이 하나같이 매가리가 없고 털도 군데군데 빠지고 아무래도 피부병 같았지요.

이러다 큰일 치르겠다 싶어서 "행보관님, 지금이 회식하기 딱 좋을 때 같습니다!" 보고했지만, 행정관은 2주 뒤 복날이 적기라며 제 뜻을 받아주지 않았고, 연대 주임원사에게까지 찾아가 회식을 앞당기시는 게 좋겠다고 읍소했지만 저처럼 토끼를 잘 키우는 병사는 보지 못했다며 복날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사이 토끼들은 하나둘 복날을 딱 사흘 앞두고 모두 하늘나라로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토사병들을 땅에 묻어주면서 저 역시 묻히고 싶더군요. 회식에 들떠 있던 간부들이 당장 영창 갈 준비를 하라고 소리쳤거든요. 저의 죄목은 식량을 원활하게 제공하지 못하여 '전투력 손실'을 일으킨 죄. 그게 죄목이 된다니 군대는 참으로 신기한 곳이구나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행보관이 말을 잘해주어 영창 대신 1주일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 돌고 끝났지만 지금도 종종 그때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다시는 추운 강원도에 안 올 줄 알았는데 인생 참 신기한 게 8년 전 춘천에 터를 잡았네요. 여전히 강원도에서 부산 사투리 쓰며 추위에 적응 중입니다.

장용의 단·필·충

두 어머님과 두 조교

홍원근 | 서울 은평구

1977년 논산훈련소에 입영했습니다. 훈련 투입은 안 하고 여러 날 사역만 시키던 어느 날, 그날도 영문도 모른 채 연병장에 집합했는데 난데없이 일반 하사로 차출이 되었다면서 지금은 없어진 경기도 가평의 제3 하사관 학교로 데려가더군요.

하사관 학교 경례 구호는 좀 특별했습니다. 단결, 필승, 충성 등이 아니라 후임자가 솔선! 하면 선임자가 수범! 대답하는 식이었죠. 아무튼 그해 4월부터 10월까지 반년 동안 잠시도 쉴 틈 없이 훈련만 받았습니다. 힘들었지요. 특히 조교들이 하나같이 다 엄격하고 무서웠습니다.

분대 공격 훈련이 있던 날, 8월이라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비 오듯 했는데 우리 훈련병들은 총을 들고 산 중턱까지 냅다 달려야 했습니다. 옆구리에 찬 수통의 물은 훈련 초반에 다 마셔 버렸지요. 7명

이 한 조였던 우린 목이 바짝바짝 탔습니다. 그때 마침 담당 조교가 "야! 너희들 수고 많았다. 잘했어, 잘했어. 5분간 휴식해!" 하는 순간 저는 산 중턱 조그만 샘물 웅덩이에 두 발을 담갔고 목이 탈대로 탄 훈련병 하나가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조교님, 물… 물 좀 주십시오!"

"뭐야? 이놈들! 훈련 중에는 수통의 물만 마시는 거 알아? 몰라? 군기가 빠졌군. 안 되겠어. 너희들 다시 분대 공격 시작점으로 올라왓!"

우리 7명은 절망했습니다. 한 번도 힘든 분대 공격 훈련을 '다시'라니요. 한 번 더 했다간 탈수증으로 모조리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심정으로 조교에게 다가가 다른 훈련병은 듣지 못할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교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야?"

"조교님, 조교님도 어머님이 계시지요? 저도 어머님이 계십니다. 조교님 어머님과 우리 어머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조교님 어머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아마도 '얘야, 훈련병들 불쌍하지도 않니? 훈련 한 번 더하라고 하지 말고 쉬게 하렴. 물도 주렴' 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은 조교님께 '우리 아들,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하실 겁니다. 조교님, 제발 두 어머님을 생각하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했고, 말하는 동안 저는 제 말에 심하게 감정이입되어 주룩주룩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조교는 효자였습니다. 어느새 조교도 눈시울이 붉어져서는 그러더라고요.

"알았어, 알았어. 재훈련은 그만두고 다들 여기 와서 물도 마시고 쉬도록!"

그 말에 훈련병 전원은 "우와! 조교님 만세, 조교님 감사합니다" 목청껏 환호를 질렀고 저는 졸지에 훈련병들의 영웅이 되었지요.

며칠 후 낙하 훈련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인간이 공포를 가장 많이 느낀다는 11미터 비행기 모형탑에서 줄에 매달려 뛰어내리는 훈련이었지요. 허리를 다칠까 봐 어깨, 허벅지, 장딴지 순서로 땅에 부딪히는 떨어지는 훈련인데 이틀간 내내 그것만 한 우리는 밤마다 내무반 침상에 누워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를 했습니다. 다음날도 착지 훈련을 해야 하는데 다들 조금만 움직여도 "아악, 아고고고" 소리가 나더군요.

어느 하사관 후보생은 조교의 구령에 맞춰 착지 동작을 해야 하는데 그냥 서 있었지요. 너무 아파서 몸이 말을 잘 안 들었을 겁니다. 그러자 조교는 꾀를 부린다며 그 하사관 후보생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저 모형탑 기둥 보입니까?"

"네, 보입니다."

"달려가서 매미처럼 달라붙습니다. 꼭 달라붙어서 맴맴~ 매미처럼 웁니다. 실시!"

"실시!"

당시 모형탑 기둥엔 부식 방지를 위한 검은색 콜타르가 덕지덕지 칠해져 있었고, 그걸 안고 있으면 가뜩이나 세탁도 어려운 상황에서 훈련복에 그 찐득한 콜타르가 묻어 곤란해질 게 아주 뻔했습니다. 참 모질기 짝이 없는 조교였지요. 그래도 무서운 조교의 말인지라 그 하사관 후보생은 기둥에 쫙 소리가 날 정도로 달라붙어 "맴맴~ 맴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제2의 매미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신이 바짝 나더군요. 하지만 착지 직전 발밑에 보이는 뾰족한 돌멩이가 눈에 들어왔고, 저는 본능적으로 돌멩이를 피하려다 동작이 꼬여버렸습니다. 잽싸게

다른 동작을 취하며 조교가 못 봤길 바랐지만 역시나 매서운 눈의 조교가 바로 소리치더군요.

"야! 거기 106번 후보생! 정신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 거얏! 당장 나와!"

저도 콜타르 기둥의 매미가 될 운명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로 '분대 공격 훈련' 때의 일이 떠오르더군요.

"그래, 밑져야 본전이다. 또 한 번 해보자!"

이번에도 천천히 조교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교님, 조교님도 어머님이 계시지요? 저도 어머님이 계십니다. 조교님 어머님을 생각해서 저 좀 봐주세요. 아마 저희 어머님도 고맙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 조교 역시 효자였습니다. 콜타르 냄새가 진동하는 기둥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더니 그 조교 역시 어머님이란 단어에 금세 눈시울을 붉히며 "야! 너 다음부터 똑바로 햇, 위치로!" 그렇게 저는 또 한 번 콜타르 기둥 접착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더니 호랑이 같은 조교의 마음을 '어머니'로 두 번이나 녹였던 그때의 제 순발력과 기지, 제 언변이 말입니다. 아마도 저를 구한 건 군대 오기 전 평범하고 착한 아들로 돌아가게 해준 위대한 세 글자 '어머니'였겠지요. 겉은 호랑이 같지만 속은 따뜻했던 두 착한 효자 조교들! 전역 후에 부모님께 효도하며 잘살고 있겠지요. 부디 다들 건강하십시오. 솔선! 수범!

장용의 단·필·충

여대생들 군부대에 들어가다

이나래 | 서울 서초구

때는 월드컵의 광풍이 한반도를 휩쓸고 간 지 얼마 안 된 2005년. 대학 신입생이었던 저는 무엇이든 하고 싶은 의지에 불타올랐고 전국 팔도를 자유롭게 쏘다니며 홍보 문구를 쓴다는 말에 혹해서 한 동아리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그 동아리는 다름 아닌 야생의 새들을 관찰하는 학술 동아리.

가입하고 첫 번째로 받은 숙제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장항습지의 겨울 철새들을 샅샅이 조사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장항습지는 지금처럼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은 군사 지역이었고 민간인 출입이 금지된 만큼 기러기부터 두루미, 다양한 새들이 찾아오기로 이미 조류학계에선 유명한 지역이었죠.

2학년 언니와 저를 포함 신입생 3명이 한 조였는데 문제는 군부대에 들어갈 방법이 막막했습니다.



"야, 군부대를 어떻게 들어가? 너희 방법 있어?"
"저희 오빠가 지금 군대에 있긴 한데…."
"진짜? 어디? 높은 사람이야?"
"아니요, 이등병인가? 두 달 전에 입대했어요."
"야 뭐야 진작 말하지. 어느 부대야? 네 오빠한테 말 좀 잘해달라고

하면 안 돼?"

"제가 알기론 이등병은 힘이 없고요. 아마 장항습지 쪽 군부대에 출입 허가 요청 공문을 보내면 어때요?"

다행히 팀원 중에 똑똑한 친구가 있어서 저희는 군부대에 공문을 발송했고 얼마 후 '학술적인 목적이니 허가한다'는 내용의 회신이 왔습니다.

신난 우리는 조사일에 맞춰 제각기 꽃단장하고 부대 앞에서 만났습니다. 다들 군부대 간다고 얼마나 예쁘게들 하고 왔는지 겉모습만 보면 단체로 남자친구 면회하러 온 여인들 같았죠. 평소 선머슴처럼 하고 다니던 동기도 그날만큼은 짧은 치마에 스모키 화장으로 멋을 잔뜩 부리고 왔더라고요.

그렇게 부대 안, 금지된 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습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대 장병들이 사용하는 생활관도 통과해야 했는데 모자를 눌러쓰고 한 손엔 총을 든 인솔 군인 뒤를 뭣도 모르고 쭐레쭐레 따라가던 그때 갑자기 한 명이 배가 아프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 나 그날인 거 같아. 어떡하지?"

우린 모두 당황했습니다. 앞서가던 군인 오빠 역시 걸음을 멈칫하는 게 느껴졌죠. 평소 거침이 없던 친구는 바로 군인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여기 여자 화장실이 어디예요?"

친구의 당당한 질문에 우린 아연실색하며 "야! 여기 군대잖아. 여자 화장실이 어딨어"라고 나섰고, 당황한 인솔 군인은 "급하십니까?"라고 당황하지 않은 척 그러나 가느다랗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급했던 친구는 "네, 저 지금 좀 바로 가야 할 것 같아요"라고 말했고, 그러자 군인 오빠는 바로 복도 끝 화장실로 걸어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싸고 있는 장병들 즉시 나온다, 실시!"

그 군인 오빠는 우리가 민망해하는 건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한 번 더 외쳤습니다.

"당장 끊고 나온다. 실시!"

요란한 배려에 다행히 제 친구는 무사히 볼일을 마쳤고 이제 남은 건 철새 조사. 습지로 진입하니 처음 보는 군인 3명이 더 나오더군요.

"여기 습지가 되게 넓지 말입니다. 잘못하면 길을 잃으니 저희가 1명씩 길을 안내하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4명은 각자 옆에 군인 1명씩을 끼고 마치 커플 데이트를 하듯 넓디넓은 습지를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는 군인은 총을 들고 저희는 쌍안경과 새 도감을 들고 군인들은 저희가 행여나 위험지대로 들어가진 않는지, 하면 안 되는 걸 하진 않는지 감시하면서도 습지의 움푹한 데 발이 빠지려 할 때마다 손을 잡아주며 옆에서 지켜 주었습니다. 그 느낌이 싫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었지요.

"저기, 몇 살이세요?"

"아, 저요? 저는 스물세 살입니다."

습지에서 팀원들과 뿔뿔이 흩어져 저와 인솔 군인 둘만 따로 떨어져서인지 군인의 말투도 처음처럼 딱딱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말도 아주 많았어요. 마치 제가 말을 걸어주기만 기다렸다는 듯 자기 소개를 하더군요.

"저는 곧 만기 전역을 앞둔 병장입니다. 새를 보는 동아리가 있는 줄은 전혀 몰랐고, 지금 이렇게 새 관찰하는 걸 보니까 나중에 전역해서 한강에 떠 있는 오리들을 보면 오늘이 생각이 날 거 같네요."

"정말요? 저희 학교도 한강에서 가까운데…."

그런데 갑자기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후다다닥 무언가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너무 놀라 그대로 얼어버렸는데 그 군인 오빠는 익숙하다는 듯 별로 놀라지도 않더군요.

"가…간…첩…?"

"아뇨, 고라니예요. 여기 고라니가 많아요. 밤에 불침번 설 땐 심심하면 고라니를 총으로 쏴서 구워 먹기도 해요."

"정말요?"

"네~ 정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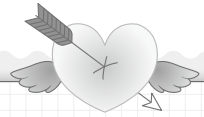
"맛있어요?"

"맛있는데 좀 질겨요. 누린내도 나고."

저는 고라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했지만 밤새 나라를 지키느라 애쓰는 군인들이 그걸로 단백질 보충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고라니와 새가 함께하는 조류 관찰 시간이 끝났고 우리는 허가받은 시간이 다 되어 군부대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 얘기를 남자친구에게 들려주니 "야! 그거 다 개뻥이야, 개뻥. 지어낸 거야. 군대라고 아무 때나 총 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고라니 먹겠다고 총 쐈다간 영창 가요. 영창. 남자들이 군대에서 '뭐 뭐 해봤다'고 하는 얘기는 80%는 거짓말이요. 20%는 허세야, 허세."

참모 병장 아저씨, 정말 그런가요? 하긴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전 지금도 그때 그 금지된 구역에서 비밀 데이트 같았던 습지 조사가 아직도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는걸요. 아직도 고양 근처를 지날 때마다 그날 까슬까슬한 군복 차림으로 절 습지에서 지켜줬던 군인 오빠가 생각난답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몽글몽글 따뜻해지는 추억이에요.



사랑탐구생활

나의 신부에게

강동완 | 경기도 안산시

예비 신부를 처음 만난 건 4년 전 어느 술집이었습니다.

"야, 우리 동네에서 한잔하는 중인데 나와라."

"지금? 오늘은 좀 피곤한데."

"여자 있다. 그것도 3명."

"주소 찍어라. 5분 안에 간다."

친구의 초대로 방문한 술집에는 비슷한 또래의 남녀가 모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짝이 안 맞아서 전화 좀 해보라고 했어요.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나온 거 아니죠?"

"억지라니요? 무슨 그런 말을. 이렇게 한잔 딱 마시고 싶던 차에 전화가 그냥 딱!"

"야 됐고. 우리 다 동갑이니까 말 놓자. 너 늦게 왔으니까 일단 석 잔 마시고 시작해."

그게 그날 처음 본 그녀의 첫 마디였습니다. 아무리 동갑이라도 초면인데 거침없이 말하는 그녀는 첫인상부터 강렬했습니다.

그날 우린 정말 신나게 놀았습니다. 술 마시는 것도 재밌고 사는 동네도 비슷해서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놀았죠. 하지만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다음 날 숙취에서 벗어나니 서로의 안부를 묻기가 아주 어색하더라고요. 서로의 연락처도 몰랐고요. 그냥 그렇게 하루 신나게 놀았던 걸로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났을 때, 또 친구가 묻더군요.

"야, 이번 주말에 뭐하냐?"

"바빠."

"스키장 안 갈래?"

"바쁘다니까."

"내 여자친구와 그 친구들도 온다는데?"

"주소 찍어. 토요일 몇 시?"

이번에도 친구는 짝이 안 맞는다면서 저를 불렀고, 스키장 초보인 여성분들에게 스키 강습을 하는 조건으로 식비와 숙박비도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대박! 안 갈 이유가 없었지요.

주말 아침, 신나게 달려서 스키장에 도착하니 고글에 헬멧, 워머까지 다 쓰고 있어서 얼굴 전체를 다 가렸는데도 저는 단박에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어? 너는 그때 그 동네 술집?"

"누구?"

"나야 나. 기억 안나? 그때 그 후래자 3배."

"아! 그때 그 연예인 매니저 한다던?"

"그래, 반갑다야! 여기서 또 보네."

1년 전, 동네 술집에서 만났던 친구의 여자친구의 친구 중 한 명. 첫 만남부터 저에게 말을 놓으며 술 석 잔을 줬던 그녀가 거기에도 와있었습니다. 초보자 슬로프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스키를 타던 그녀는 넘어지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도 뭐가 그리 좋은지 작고 아담한 그녀가 깔깔거리며 스키 타는 모습이 하얀 눈보다 순수하고 해맑게 보이더군요. 1년 전, 술집에서 "인마! 마셔~"라고 터프하게 외치던 그녀가 아닌 듯했습니다. 귀엽게 웃고 있는 모습이 낯설고 새로웠죠. 스키 타는 법을 알려준 후에도 저는 그녀를 따라다니며 지켜봤습니다. 넘어지면 언제든 달려가 구해주려고요.

잠깐이었지만 함께 스키를 타면서 아주 친해진 기분이었고 정말 즐거웠어요. 지친 몸을 이끌고 숙소에 돌아온 후에도 제 눈에는 그녀만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 속에서도 작은 체구의 그녀는 빛이 났고 특히나 흥이 남달랐어요. 그녀 주변으로 즐거운 분위기가 몽실몽실 퍼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아마도 그때 그녀에게 반한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연락처도 묻지 못하고 스키장에서 헤어졌고 그 후로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매니저 일로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자꾸만 그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전화번호를 물었더니 알려주더라고요. 그렇게 연락처를 얻어 또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전화했습니다.

"안녕? 잘 지냈어? 응, 나야. 우리 한번 보자."

제 연락에 그녀는 살짝 당황한 듯했지만 데이트 신청을 수락해주었고, 2019년 3월 1일 우리 단둘이 처음 만난 그날 바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직업은 모 배우의 매니저. 꿈을 안고 시작한 직업이지만 직업 특성상 촬영이 시작되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현장 상황 때문에 그녀와의 약속은 자주 깨지고 변하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매니저라는 직업이 저에겐 보람도 있고 성격과 적성에도 잘 맞았지만 그녀를 항상 기다리게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하던 어느 날, 우리가 연애한 지 한 10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이제 내 나이도 있고 결혼도 생각해야 하는 데 널 만나면 난 항상 널 기다리는 외톨이가 된 기분이야. 우리, 헤어지자."

새벽 4시. 그 전화를 받던 그날도 저는 촬영이 지연되면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당장 그녀에게 달려가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싫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헤어짐을 통보하는 그녀도 너무 미웠지요.

'그래, 헤어지자 헤어져! 딱 일주일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만약에 일주일이 지나도 그녀 생각이 나면 그때! 그때 남자답게 붙잡아 보자!'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후로 일주일 저는 지옥 속에 있었거든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밥을 먹어도, 운전해도 온통 그녀. 어떻게 하면 그녀를 다시 붙잡을 수 있을까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만나자. 너한테 꼭 할 얘기가 있어."

자주 가던 카페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할까?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긴장하고 있던 그때 그녀가 들어왔고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 고민은 다 사라지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더군요.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제가 싱글벙글 웃고 있으니 그녀도 황당했나 봅니다. 함께 웃어주더군요. 그녀의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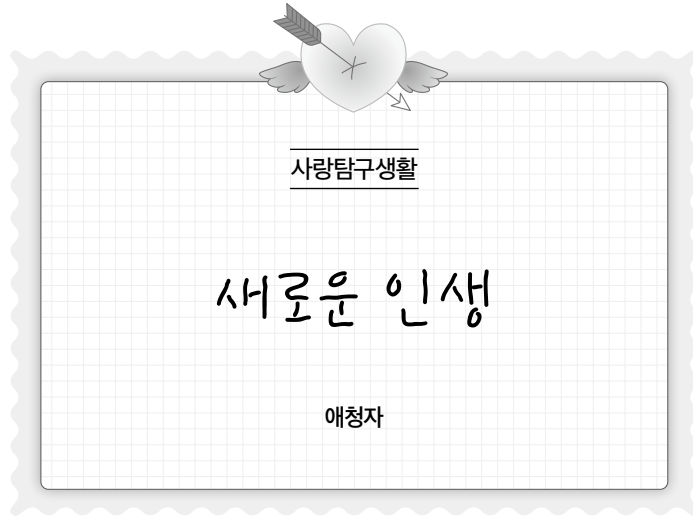
"나, 매니저 그만둘게. 안정적인 직업을 구할 거야. 더 이상 널 외롭게 기다리게 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랑 결혼해줄래?"

그 후로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현재 군무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군무원 공부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녀는 말했죠.

"야, 공부는 아무나 하는 줄 알아? 그리고 너 어릴 적에 교통사고 나서 군대도 면제받았다며? 근데 네가 군무원을 한다고?"

불안해하는 그녀를 위해 저는 더 열심히 노력했고 비록 첫 시험에선 아쉽게 떨어졌지만 한 번 더 도전해서 1년 후 그녀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여자 예쁜 선하야. 이번 주 토요일이면 서른일곱, 내가 드디어 너에게 장가를 가는구나! 이 사연이 프러포즈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 이 사연 듣고 있다면 당신은 정말 많이 놀라겠지? 놀라는 자기 모습만 생각해도 난 지금 행복한 미소가 지어져. 내 곁에서 항상 날 믿어주고 응원해줘서 정말 너무 고맙다. 당신 덕분에 이렇게 우리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에 매번 감사하고 있어. 코로나 때문에 결혼 준비가 쉽지 않지만 이 사연이 우리에게 깜짝 선물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처럼 앞으로도 당신 곁에서 사랑하고 아끼며 살게. 우리 즐겁고 재밌게 살자! 자기 말대로 평생 같이 놀자. 영원히 사랑해. 많이 많이 사랑해. 선하야, 나랑 결혼하자!"



봄꽃들이 햇살처럼 환한 눈부신 계절, 내 인생에도 두 번째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5년 전, 남편은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3년 동안 힘들게 항암 치료 받다가 끝내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혼자 남겨진 허전함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있을 때 좀 더 잘해줄걸.' 못해 준 사랑의 아쉬움에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아들 둘은 결혼해서 다 객지 생활하고 가끔 전화로만 안부를 묻곤 했지요. 그렇게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던 어느 날, 남편이 하던 가게를 정리할 때 도와주셨던 남편 친구분이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언제 시간 괜찮으면 같이 식사나 한번 하시죠?"

그분은 부인을 먼저 보낸 지 7년, 각자 사별의 아픔을 간직한 우리들의 만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커

튼을 달다가 넘어져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됐을 때 그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퇴원한 후에도 더 자주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고 차츰 그분의 진심을 알게 됐지요. 자상하고, 요리도 잘하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 내 어깨와 다리를 안마해주시는 그분을 아이들도 싫어하지 않고 엄마의 남자친구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명절이나 남편 기일 때 평소 남편이 좋아하던 문어랑 생선도 그분이 다 준비해주세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남편이 몹시 아플 때 "나 먼저 떠나면 우리 집사람 좀 네가 많이 도와줘라" 부탁했다고 합니다.

벌써 그분과 가까이 지낸 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우린 복잡하게 재혼해서 한집에 살기보다는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면서 삶의 동반자로 서로를 챙겨주자 했어요. 그분이 아프면 내가 그분 집에 가서 간호도 해드리고 내가 아프면 그분이 우리 집에 와서 며칠 보내면서 지내자고요. 만약에 나이가 들어 어느 한쪽이 짐이 될 정도가 되면 각자 자식들한테 가기로 하고 부담 없이 제2의 삶을 살자고 약속했습니다.

함께 운동도 하고, 노래 교실도 가고, 작은 텃밭도 가꿔서 무공해 채소와 과일로 건강도 다지고 가까운 분들과 나누는 재미도 쏠쏠하답니다. 자식들이 오면 함께 외식도 하고 여행도 즐겨요. 자식들은 재산 문제로 걱정 안 해서 좋고 우린 서로 챙겨주는 사람과 노후를 함께할 수 있어서 덜 외롭고 걱정이 덜 된답니다.

그분은 언제나 맛있는 걸 보면 꼭 두 개 사 와서 나눠 먹자 해요. 여태 나를 위해서는 뭐 하나 제대로 못해봤지만 앞으로는 서로 베풀면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갈 겁니다. 서로 아껴주고 배려하면서 오래오래 함께이고 싶어요. 지금 텃밭에는 두릅, 머위나물, 매실나무가 한창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내려다보는 남편도 빙그레 웃으면서 텃밭에다가 꽃 비료를 많이 뿌려주시네요.

주말엔 투유

만날 수 없는 딸에게

애청자

보고 싶은 빈아, 이 편지가 너에게 쓰는 두 번째 편지가 되겠구나.

첫 번째 편지는 할머니네 식당으로 보냈었는데 이 편지는 어디로 보내야 할지 모르겠어. 혹시 빈이가 듣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렇게라도 전해본다.

우리 빈이가 세 살 될 무렵, 아빠와 엄마는 헤어지게 됐어. 아빠는 널 데려가면서 "빈이가 성인이 되면 만나게 해줄게"라고 했지. 엄마는 그때 가슴이 타들어 가는 듯했어. 이제 벌써 우리 빈이가 스물넷이나 됐는데 왜 만나지 못하는 걸까. 엄마는 아직도 네 맘마 먹는 모습, 포도알 가지고 놀던 모습,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모습만 떠올라.

한때는 아빠가 널 가끔이라도 만나게 해줬어. 그러다 네가 다섯 살 쯤 그때를 마지막으로 더 볼 수가 없었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식사하던 날, 음식이 나오기 전에 빈이가 엄마를 꼭 끌어안으며 "엄마

사랑해"라고 말해줘서 정말 감동이었어. 아직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그날 이후로 엄마는 빈이를 만나지 못하고 있네. 너의 새어머니께 부탁해서 멀리서나마 몇 번 훔쳐보듯 본 것이 다였지. 네가 열다섯이 되었을 때 엄마한테 먼저 전화도 걸어줬잖아. 난 그 상황이 얼떨떨하면서 너에게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몰랐던 것 같아. 그래서 "아직도 거기 사니?"라는 말만 되풀이했네. 너는 네가 사는 곳을 종알종알 설명해주었지만 난 "그렇구나~"하며 네 말을 톡 잘라버렸지. 그때 엄마가 왜 그랬는지 아니? 행여라도 기억해뒀다가 너희 집으로 찾아갈까 봐, 내가 민폐를 끼치게 될까 봐 두려워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 빈이 네가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아직 서운해하고 있다면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이런 엄마를 이해해줄 수 있겠니? 전화로 계속해서 울던 네 목소리가 생각나. 안타깝고 측은한 마음에 "너무 울지마. 그럼 힘 빠져서 안 돼"라고 너를 서툴게 달랬지. 그때 네 마음은 어땠을까. 지금 생각해보니 엄마 마음과 똑같았을 것 같아. 얼마나 응어리졌으면 그렇게도 울었던 거니. 얼마나 원망스럽고, 보고 싶고, 처절했으면 목놓아 울었던 거니. 엄마가 이제라도 용서를 빌게.

며칠 전, 빈이 새어머니와 통화했는데 네 연락처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하시더라. 아빠랑도 통화해서 너를 한 번 만나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빈이 하고 연락해보고…"라고 하며 말을 줄이더라. 알겠다고 꼭 좀 부탁한다고 말하고 끊었어.

지금은 비록 아빠와 새어머니 도움이 없으면 너를 만나기 힘들지만 머지않아 우리 빈이와 엄마가 스스럼없이 문자도 하고 통화도 할 날이 올 거라 믿어. 빈이가 엄마한테 곧 연락할 거라고 믿고 있을게. 항상 건강해야 해. 빈아. 정말 정말 사랑한다. 우리 딸.

주말엔 투유

동생이 된 영자 씨에게

조태실 | 대구광역시 동구

엄마! 내 사랑 영자 씨! 영자 씨는 오늘도 나를 해맑게 반겨주네.

"언니 왔어?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애들 학교 보내고 왔지."

"밥은 먹었어?"

"그럼~ 엄마는 밥 먹었어?"

"나 너무 배고픈데 큰언니가 아무것도 안 줘. 배고파 언니!"

"그럼 딸기 먹을까? 딸기 씻어 줄게."

"언니 오니까 딸기도 주고 좋다. 언니 최고!"

아침에 일어나는 우리 집 풍경. 우리 세 자매가 번갈아 가며 엄마를 돌보기 시작한 게 벌써 7년째야. 아버지 돌아가시고서부터 누군가 엄마의 머릿속에 기록된 80년 세월을 조금씩 지우고 있어. 처음에는 조금 무기력해 하셨을 뿐 다른 증상은 없었는데 어느 날은 집 비밀번

호를 몰라 경비실 통해서 집에 오시더니 조금 지나서는 아예 집이 어딘지 못 찾던 우리 영자 씨.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더라. 그저 속도만 조금 늦춰줄 뿐. 엄마가 한 번씩 여기가 내 집이 아니라고 나가려고 할 때, 시골집에 놔둔 살림살이들 도둑이 다 훔쳐 간다고 뛰쳐나갈 때, 그때마다 내 가슴속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몰려와. 이젠 엄마가 사위까지 알아보지 못하니까 심장이 정말 쿵 내려앉는 기분이야. 코로나 때문에 바깥 활동을 못 하게 되면서 더 심해진 것 같아. 성향이 공격적으로 바뀐 건지 센터의 어르신들과도 계속 다툼이 생겨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됐지. 하는 수 없이 딸 세 명이 번갈아 가며 막냇동생이 된 엄마를 돌보고 있네.

세 딸을 언니라고 부르는 우리 엄마. 근데 난 엄마가 내 동생이 된 게 싫지 않아. 저녁 먹고 난 뒤 내가 씻겨줄 때마다 엄마가 나한테 그러잖아.

"언니 너무 좋다. 언니뿐이야. 이렇게 나를 씻겨주는 언니는 참 착해. 사랑해."

사랑스러운 우리 엄마, 내가 맛있는 거 해줄 때, 엄마를 챙겨줄 때, 또 한 번 내 귀에 속삭이지.

"언니는 복 받을 거야. 부자 되세요!"

이번 달은 우리 영자 씨가 80세가 되는 날이네. 그런데 갑자기 내가 코로나 확진이 돼서 우리 엄마 생일 축하도 못 해주고 너무 속상하다. 같이 있고 싶고, 엄마의 부드러운 손도 만지고 싶은데 맘 아프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내 마음 전하고 싶다. 김영자 여사! 내 막냇동생! 내가 계속 엄마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엄마는 아무 걱정하지 마. 지금처럼만 옆에 있어 줘요. 많이 사랑해, 영자 씨!

주말엔 투유

그동안 고생 많았어

박성안 | 부산광역시 진구

너와 함께한 지도 벌써 4년이나 되었구나. 애쓰지 않아도 언제나 내 곁에 있었기에 소중한 존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내가 첫 아이 낳을 때도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도 쭉 함께해준 너. 4년간 힘든 내색 없이 문제 한 번 일으키지 않던 너. 그래서 우린 네가 당연한 존재로 느껴졌고 오랜 시간 함께한 만큼 정도 많이 들었었어.

그런데 어느 날, 존재를 알아주지 않는 우리에게 너는 서운했던 건지 갑작스러운 이별을 고하더라. 불꽃까지 내뿜는 네 모습이 마치 우리에게 화를 내는 것 같아 미안했어. 네가 빵! 하고 터져버릴까 두려웠는데 빠른 속도로 차가워지더구나. 그날 난 네가 무섭게 뿜어내던 불꽃이 머리에 튀어 살짝 쿵 구멍이 생겼네. 그렇게 티 나진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요즘 우리 가족은 샤워 후 눈물을 뚝뚝 흘리는 머리카락과 함께 너



를 만나지 못하는 슬픔에 잠겨 있어. 지금 넌 고장이 나서 차가운 바람만 약하게 내뿜는 드라이기지만 차가워져도 괜찮아. 난 그저 네가 터지지 않아서 감사해. 그동안 머리숱 많은 우리 가족 때문에 고생 많았지? 한 번 켰다 하면 온 식구 머리에 바람을 쐬어 주느라 쉬지도 못하고 일했던 너. 그래서 과로로 네 수명을 다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일찍 쉬는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해.

드라이기야! 그동안 너무 고마웠어. 넌 함께한 4년 동안 정말 요긴했고 우리 집에 없어선 안 될 식구였다. 네가 화내서 생긴 머리의 구멍은 아주 작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메꿔 볼게. 넌 충분히 노력했고 우리 가족에게 많은 도움이 돼줬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젠 보내줄게! 우리 집 식구였던 까만 드라이기! 잘 가라.

주말엔 투유

쫑이에게

이소진 | 전남 순천시

쫑아 안녕? 언니야.

우리 쫑이 잘 지내고 있지? 네가 내 곁을 떠난 지 벌써 두 달이 됐네. 심장사상충으로 너를 보내고 나서 죄책감과 미안함으로 하루하루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너를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나의 무심함으로 건강했던 너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내서 아직도 나 자신이 원망스러워. 그런 무서운 병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모기에 물려도 사람처럼 곧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쫑이 너와의 추억은 정말 셀 수도 없지. 적막한 우리 집에 네가 온 후로부터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어. 너를 처음 만난 게 벌써 12년 전, 친구 집에서 처음 본 너는 흰털에 갈색 무늬 옷을 입고 갈색 선글라스까지 낀 깜찍한 생후 3개월 강아지였어. 당시, 강아지를 키울 수 없는 친구 사정 때문에 내게로 오게 됐지. 우리 집에 온 너는 가족들이 무

슨 말만 하면 초롱초롱 빛나는 눈으로 쳐다봤지. 그래서 그런 걸까. 유난히 말귀도 잘 알아들었던 것 같아. 긍정의 의사를 전하고 싶을 때는 앞 두 발을 들고 앉았고, 부정의 의사를 전하고 싶을 때는 앉은 채로 고개를 휙 돌렸지. 귀여웠던 그 모습이 눈에 아른거린다.

직장이 타지에 있어서 주말에만 너를 만날 수 있었지만 너와 함께 산책했던 일은 내 일주일의 낙이었어. 쫑이 너도 산책을 제일 좋아했지? 산책하러 갈 때 너는 큰 소리로 짖으면서 몇 번이고 점프했지. 어느 무더운 여름날에는 내가 산책하기 너무 힘들어서 "쫑아, 지금은 너무 더우니까 우리 3시에 가자" 하고선 깜빡 잠들었는데 네가 하도 짖어서 깨어나 보니 시계는 3시 15분을 가리키고 있더라. 산책 마니아 쫑이에게 산책을 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

그런데 우리 쫑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산책을 하다가 다친 일도 있었잖아. 길에서 웬 큰 개가 너에게 달려들어 복부를 여덟 군데나 이빨로 물어뜯었고 쫑이 너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피를 흘렸어. 나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에 어찌할 줄 몰라 울면서 피를 흘리는 너를 안고 동물병원으로 갔지. 일요일이라 문이 닫혀 있었고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가까스로 문을 연 병원을 찾을 수 있었어. 수의사는 큰 개의 이빨이 장기를 건드렸다면 장기파열로 즉사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비스듬하게 엇나가서 최악을 모면했다고 했어.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렸을 때도, 수술할 때도 많이 아팠을 만한데 단 한 번도 낑낑대거나 울지 않았어. 아마도 내가 슬퍼할까 봐 묵묵히 고통을 참았는지도 몰라. 언니는 조금만 아파도 눈물이 나는 데 언니보다 낫다고 생각했어.

그런 큰 고비까지 넘긴 만큼 오래도록 우리 곁에 있을 줄 알았던 우리 쫑이. 어느 날부턴가 먹지도 일어서지도 못한다는 말을 듣고 집으로



왔는데 내 발소리만 듣고 먼저 대문 앞에서 기다리던 네가 얌전히 앉아만 있더구나. 너를 병원으로 데려가던 길, 조수석에 앉아 운전하는 나를 향해 애처롭게 쳐다보며 힘없이 "낑" 외마디 소리를 냈지.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너는 직감하고 있었는지도 몰라.

눈보라가 치는 유난히 추운 2월의 새벽에 숨을 거두고만 쫑이. 다 못난 언니 때문이야. 아직도 너에게 못 해준 것만 생각난다.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좋겠다. 쫑아,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해줘서 고마웠어. 이제는 무지개다리를 건너 하늘의 별이 되었을 쫑이. 언니는 우리 쫑이를 언제까지나 잊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할 거야. 그곳에서 언니를 내려다보며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간혹 언니 꿈에도 찾아와 네 소식 좀 전해줘. 언니가 걱정하지 않게. 쫑아,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해.

여름 일상



양희은 | 여성시대 진행자

울릉도에서 이장희 선배가 올라왔다며 보고 싶다고 점심이나 하자고 해서 방송 끝나고 만났다. 여러분이 모여 계셨다. 이장희 선배가 너무도 반가워해서 좀 놀랐다.

"야~ 보려면 지금 봐야 돼. 지금 아니면 늦어. 나중에 또 보면 되지 하지? 그러다 보면 죽어. 죽더라고. 못 봐. 그러니까 보고 싶을 때 봐야 해. 어머니 모시니? 야~ 모실 사람이 있다는 게, 지켜 드릴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으냐? 난 아무도 없어. 혼자야."

"형은 늙은 고아네. 지난 번 열린 음악회 때 보고 처음이네요."

"그래, 순서대로 대기하느라 스쳐 갔지? 뭐 얘기나 했니? 희은이랑 이렇게 얘기해본 거 처음이다. 그러네. 너 노래한 지 52년 됐다고? 아직도 이 물에서 일하고 있는 현역은 너 하나뿐인데 정말 반갑다. 만나서 좋았다."

그러면서 형은 비 내리는 골목길을 뛰어갔다. 그런데 뛰어간 끝이 결국 건널목이어서 다시 인사를 하며 우린 웃었다.

해마다 모과꽃이 절정일 때, 그 그늘 아래 모이던 모과꽃 파티를 3년 만에 하게 되었다. 강화 집 주인장은 외포리에서 아침 일찍 새우, 대합, 꽃게, 소라, 가리비를 사서 굽고 김치도 내왔다. 모임에선 각자 후식으로 떡, 과일, 타르트 등을 준비해갔다. 가져온 과일 중 수박이 최고로 인기가 좋았는데 다들 올해 들어 첫 수박이라 했다.

"식구가 적으니 큰 덩어리는 엄두가 안 나고 요샌 뭐 200g, 500g, 1kg 그렇게 잘라서 파는데 처음 사봤어. 모이면 열 사람 넘으니까 큰 거 한 통 사서 갈라 먹고 말자고. 어느 밥집서 상 물리고 후식으로 토마토에 설탕 뿌려 내는데 옛날 생각나더라."

"옛날식 수박화채도 맛났잖아?"

"그래, 그땐 양 늘리자는 화채였지!"

해산물 구워내며 요리 두어 가지에 비빔국수까지 만들어 준 주인장 수고에 고마워하며 오는 길에 나눈 얘기들.

"요새 이런 집이 어디 있어? 남편 있지? 딸 있지? 사위 있지? 손자 있지? 하이구야. 나이 든 개도 두 마리나 있지?"

신부전증 앓는 노견을 품에 안고 주사기로 수시로 물을 먹이는 친구도 함께했는데 나이 든 개 세 마리를 보며 우리의 앞날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얕은 계단 오르기도 힘겨워하는 그 모습이 앞으로의 우리 모습이야. 어쩔 수 없이 그리 따라갈 터인데…." 측은지심으로 바라본다.

나이 듦에 대한 얘기도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만큼 끝이 없다. 치매 예방을 위한 책 읽기는 눈으로가 아닌 목소리 높여 읽는 책 읽기여야

된다면서 어린 날 읽었던 고전 희곡을 큰 소리로 읽는데 새삼 재미있더란다.

전철 타고 다니며 사람 구경하기도 심심치 않고 무릎이 절단 나고 머리가 많이 빠져 신경 쓰인다는 얘기며, 다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여성시대 진행 계속하라고 권했다.

모과꽃은 이미 다 졌지만 대신 웃음꽃이 피었다. 남편도 함께 가고 싶었지만 집에서 쉬겠다기에 아무도 방해 안 하는 차 속, 나 홀로 동굴을 즐기며 바람 따라 물결치는 나무숲을 보며 인적 드문 강화 옛길을 운전하는 맛도 그런대로 좋았다.

가끔 아침 일찍 놀거리, 마실 거리가 아쉽다고 했는데 우리 동네 고양시 새벽시장 호수 장터가 토·일 오전 6~9시까지 열려서 새벽 구경거리가 생겼다.

일 없으면 늘 집콕에다가 외식이라 봤자 점심 한 끼, 웬만하면 해지기 전에 귀가하는데 새벽 6시 문을 여니 너무 좋고, 만들어 내놓은 찬거리와 장아찌, 짠지, 두부도 있고 다육이 화분까지 나와 있었다. 뭔가 활기찬 기운이 도는 시장 풍경이다.

채소 몇 가지 사서 콩나물을 무치고 호박젓국 찌개와 오이 초절이도 만들어 휴일 점심 밥상이 제법 풍성했다. 마트보다 싱싱하고 푸짐한데다 값도 싸니까 안성맞춤이다. 이런저런 일상으로 여름이 무르익어가는구나.



당연한 것들 기본은 지켜져야 한다

서경석 | 여성시대 진행자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현저히 감소하면서, 무려 2년 넘게 지속되어 온 코로나 팬데믹의 끝이 보인다.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비롯한 거리두기 제한도 대부분 해제되었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은 듯하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요즘 사람들의 관심은 그동안 억눌려 있던 몸과 마음을 제대로 풀어줄 것들에 쏠려 있다. 그중 최고는 '여행'이다. 몸과 마음의 힐링이 우선되어야 일상으로의 회복도 잘 될 것 같은 마음 때문이다.

항공사, 여행사 홈페이지 방문과 여행 관련 기사 검색을 하루에도 네댓 번씩 하며, 1, 2박으로도 다녀올 수 있는 가까운 나라들로의 여행이 언제 자유로워질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사항을 체크한다.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거나 성격 급한 사람들은 해외여행 자율화를 굳이 기다리지 않는다. 주말마다 이곳저곳으로의 나들이를 떠나느라 금요일 오전부터 한껏 들떠있다.

여행만큼이나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것, 바로 각종 '모임'이다. 직장에서의 회식은 물론, 친구들과의 만남, 지인들과의 파티 등등 낮밤을 가리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나 역시 거리두기 해제 이후 조금씩

주변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마스크 벗으면 알아보기 쉽지 않았던 여성시대의 신입 피디와 막내 작가의 얼굴도 이제는 두세 번의 '여성시대' 점심 회식을 통해 완벽히 알 수 있게 되었다.

나를 포함, 우리 모두가 그동안 참아왔던 여러가지 일들을 자유롭게 해보고 싶은 요즘의 이런 분위기, 선만 지켜준다면은 얼마든지 긍정적이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의 기본을 망각한 행태는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아직 의무이다. 하지만 마스크가 없는데도 거리낌 없이 실내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야외에서 벗고 다니다가 깜빡할 수는 있다. 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매장 직원의 부탁에 적반하장으로 '이제 다 끝났는데 너무 빡빡하게 군다'며 화를 낸다.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 후, 늦은 밤거리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런데 쓰레기도 함께 쏟아져 나온다. 업장을 나온 취객들이 바로 귀가하지 않고, 거리에서 또 회포를 풀며 쓰레기도 풀어낸다.

전 인류적 재앙인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긍정적 교훈이 몇 가지 있다. 기본과 원칙만 지켜도 환경이 얼마나 개선되는지에 대한 깨달음, 항상 그 자리에 있어 몰랐던 가족의 고마움 등.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우리가 모두 공감하며 한 입으로 얘기했던 소중한 가치들이다.

야외에서도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고, 실내에서는 반드시 써야 한다. 우리의 밤거리, 코로나 때는 정말 깨끗했고, 그전에도 이렇게 더럽진 않았다. 이번 주말에 친구들과 여행 가면, 다음 주말엔 부모님 뵈러 갈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기본은 지켜져야 한다. 적어도 코로나 전 상황보다 안 좋아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은행이 전통시장 디자인을 한다구요?

IBK희망디자인 프로젝트 _ 전통시장

달라진 입구며 간판 때문에 시장이 다시 북적이니까
처음 장사하던 때처럼 신이 난다는 사장님
IBK기업은행이 전통시장 디자인으로
사장님들의 희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IBK희망디자인 프로젝트 _ 남포동 건어물 도매시장

IBK기업은행이 소상공인들의 간판과 차광막, 로고 등을 디자인하고 설치하여 골목상권의 환경을 재정비해 주는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시작해 총 260여 개의 소상공인 터전과 함께했으며, 2021년에는 남포동 건어물 도매시장 디자인을 지원하였습니다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